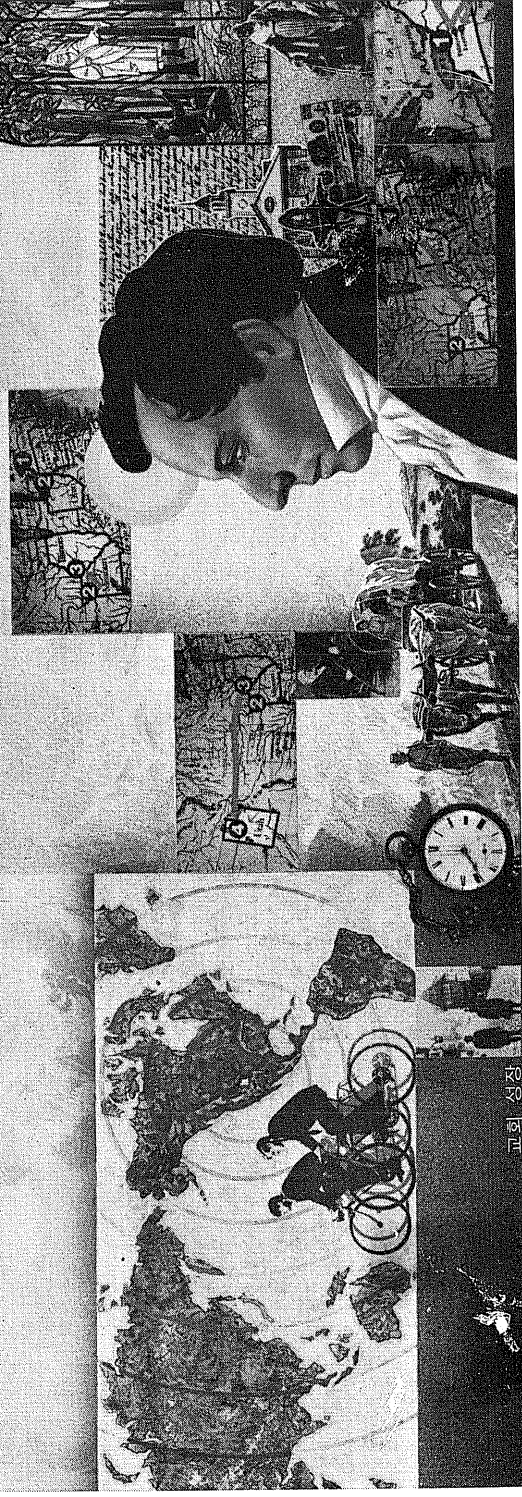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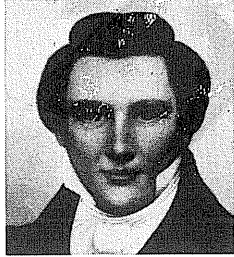


성도의 빛 4
1980

표지 설명: 첫 번째 시현, 이틀이 밝혀지지 않은 작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 스테인드 글라스(색유리)는 1908년에 완성된 것으로 높이 20피트, 너비 14 피트의 유리이다. 이것은 솔트레이크 신전 청문에 알맞게 되어 있는 데 현재 솔트레이크 리버티 스테이크 제 2 와드에 있다.



교회 성장



성도의 벗 4

1980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엘톤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교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렉스 디 피네가

휴 더블류 피녹크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리

차 례

150주년 기념호 권두사.....	편집자.....	2
“땅 끝까지”.....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3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관한 구세주의 견해.....		10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관하여 요셉 스미스는 무엇이라고 말했나.....		13
교회 150년사.....		17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일의 예언자들의 간증		
요셉 스미스 이세.....		20
브리감 영.....		23
존 테일러.....		34
윌포드 우드럼.....	18.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36
로렌조 스노우.....		38
조셉 에프 스미스.....		39
허버 제이 그랜트.....		58
조지 앨버트 스미스.....		61
데이비드 오 맥케이.....		62
조셉 필딩 스미스.....		64
해롤드 비 리.....		75
스펜서 더블류 킴볼.....		78
내 친구(자신의 일지를 쓰십시오).....		41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말라.....	엔 엘돈 태너.....	42
가장.....	샌디 엘 블레드소.....	45
점 잇기.....		48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		49
빨강색 외투.....	아이어리스 신더가드.....	50
심심풀이.....		56
우리 시대의 영광스러운 복음.....	브르스 알 맥콩키.....	82
지역 지도자 메시지.....	김 창선.....	92
지역 소식.....		93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8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2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4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77호, 제16권 제4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0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틸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과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80년
제16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편집 소주

STOCK NO. PBMA0449KO PRINTED IN SEOUL, KOREA 4/80

150주년 기념호 권두사

성도의 벗, 1980년 4월호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기념할 때는 그 사건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150주년 회복 기념일은 회복된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교회 회원들에게는 참으로 큰 의미를 안겨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계사를 통해서 종교나 철학이 수 천년이란 긴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볼 때 150년이라는 기간은 그다지 긴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들이라면 복음의 역사는 지구의 역사보다도 더 오래 지속되어 왔으며, 아담의 시대 이후로 지상에 여러 시대를 통해 존속되어 왔고, 또 이 교회는 구세주께서 지상에 성역을 베풀었던 시기에 조직되었던 교회와 동일한 교회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난 150년 동안에 우리는 이 교회를 확고한 기반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르기 위해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영웅적인 행위가 요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일을 행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가 보여주신 모범과 커틀랜드와 나부 성도의 시련 및 개척자의 투쟁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며, 예배당과 신전을 짓고, 선교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이름없는 성도들의 공헌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는 킴블 대관장께서 197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킴블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거보를 내디딜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 교회가 성숙과 성장의 단계에 다달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성도의 벗 1979년 10월호)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이 1830년 4월 6일에 일어난 이 위대한 사건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왕국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음의 폭”을 넓혀 온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150주년 기념 성도의 벗 특별호의 발간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내다보고 지난 150년 동안 있었던 사건과 그것이 우리에게 준 의미,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의미, 우리 교회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 이 교회를 세우신 구세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편 집 자— *

“땅 끝까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1978년 9월 29일, 지역 대표 세미나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온 세계에 있는 말일성도들의 생활에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더 많이 수고하여야 합니다. (항상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 회원들이 궁핍한 자들에 대하여 알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음을 걱정하는 것 보다 우리가 그러한 필요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염려스럽습니다. 모로나이는 온 세대가 이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기를 “가난하여 궁핍하며 병들고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

하기 보다 더”(몰 8:37)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모로나이는 또한 때때로 “굶주리며 궁핍하여 혈벗고 병들어 고난당하는 자”가 사람들 옆을 지나쳐도 그들이 “거들떠 보려고”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몰 8:39)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형제 여러분, 교회 프로그램 운영에 급급하여 사도 야고보가 말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에서의 기본적인 임무인 이러한 임무를 망각하는 일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약 1:27)

나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문앞에서 있을 때 문을 열어 준 로메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로메는 예언자가 와 있다는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지만 그들은 그녀의 말

을 믿지 않았읍니다.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행 12 : 15)

우리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우리에게 살아 있는 예언자가 있음을 끊임없이 힘써 주장하여야 합니다.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지도자나 추종자 모두가 해야 할 훌륭한 일입니다. ‘끊임없이’라는 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실한 성도들이 오늘도 잘 하지만 그 봉사가 점점 나태하여져서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 엘마는 “마음에 변화”를 경험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 것입니다. “구속의 사랑을 노래하겠다는 느낌을 가져 보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엡 5 : 26)

우리는 기복이 없이 늘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활에 축복을 주셔서 임무를 수행할 때나 일상 생활의 행위에 있어서 “구속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

“보라 발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 보라, 힘을 다하여 낫질하는 자는…자신의 영육을 구원시키느니라.” (교리와 성약 4 : 4)

지금까지 이미 여러 번 말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할 임무와 의무가 하늘로부터 주어 졌읍니다.

주님께서 지상 생활의 마지막 주에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왕국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에 종말 곧 악인의 멸망이 임하리라.” (요셉 스미스 1서 : 31)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거니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만큼 빨리 진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이 온 나라를 덮고 있어 복음 전파의 길을 예비해 주고 제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들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이 백성들과 나라의 모든 일을 조정하시어 지도자들은 그들 가운데에서 선출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증인”으로서 온 나라로 전파되는 준비의 날을 서두르고 계시는 듯싶습니다. 많은 과학 기술은 복음 진리를 말하기에 적합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다소 늦은 것 같습니다. 교통 수단의 기술과 발전은 세계를 좁혀 놓았으나, 중공, 소련, 인도, 아프리카 대륙, 아랍 지역—등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자녀들에 대하여 생각하면 아직도 세계는 넓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미국에 온 다른 민족의 학생들과 우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든지 갖지 않든지에 상관없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그들을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외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의 사업입니다. 복음의 빛에서 볼 때 그들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님”니다. (엡 2 : 19)

나는 때때로 이미 절반은 개심된 상

태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기에 지쳐 버리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나는 때때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오래 기다려서, 교회를 세우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먹일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거나 않나 하고 염려합니다. 우리는 주의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탁상 공론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을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에 있어서 크나 큰 진전을 보았으며, 그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선교부를 조직하였고, 옛 선교부를 분리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19세에서 26세 사이에 해당되는 젊은이들의 50퍼센트가 선교사로 나가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힘은 배가 넘었으며, 곧 다시 지금의 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회원들은 이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계명에 충실하게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는 이성구의 다른 부분, 곧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를 강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모든 족속에게…가르치라”는 우리의 임무에 있습니다.

주께서 감람산 꼭대기에 서서 십이사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을 때 무엇을 의미하셨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니”(행 1:8) 이 말씀은 그가 하늘의 본향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거니와, “땅 끝까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미 사도들이 알고 있는 지역을 언

급하셨습니다.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극동 지역이나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땅 끝까지”란 어느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미대륙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 것이었을까요? 히랍, 이태리, 지중해 연안, 중부 유럽 등지의 주민들을 의미한 것이었습니까? 그가 의미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아니면 온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수세기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지정된 영들까지 포함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의 말씀과 의미는 과소평가한 것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세계 40억의 인구 중에서 1년에 겨우 2만명의 개종자를 낳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치유제와 그 강력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복음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실생활을 보여 주고, 그들이 어떻게 더 나은 생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시작조차 못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몇몇 신앙이 강한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선교사 체제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역 대표로서 주님의 사업 중 많은 부분이 교회 조직과 각과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모두 다 이것을 통하여 수행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인식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진해 주기를 기

다리는가를 생각할 때, 이러한 생각이 나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하여 적당한 교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은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전세계의 십분지 일이 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미 전체 인구의 두 배가 되는 인구입니다. 주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제외되었습니까? 그들은 “땅 끝까지”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도 브리감 영 대학교나 다른 학원에 등록하여 다니고 있는 흑인 학생이 여러 명 있어서, 그들은 말일성도의 생활을 배울 수 있고, 교회의 정책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는 가나에 있는 어떤 학생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자신을 말일성도로서 여기지 못하게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침례와 확인을 받아 정식으로 말일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적당한 때가 되면 아론 신권도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나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나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등 시온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 항상 희열을 느낀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빛과 지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활발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북



...보라 밭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 보라, 힘을 다하여 낫질하는 자는 ...자신의 영육을 구원시키느니라. (교리와 성약 4:4)

음이 간절하게 가르쳐질 날에 대비하여 사람들을 그의 영으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주님은 1830년에 팔리 피 프랫과 다른 몇몇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선교 사업의 사명을 맡겨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몸소 저들과 함께 가며 그 가운데 있으려니와 아버지께 향한 저들의 변호인이니, 저들을 이길 자는 결단코 없으리라”(교성 32:3)

물론, 소위 말하는 “제3의 세계”라는 나라에서는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진 흑인 회중의 많은 사람들이 문맹자이거나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회중의 청소년들의 교육을 도와야 하고, 그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원리를 가르쳐서 그들이 자신을 경제적, 문화적, 영적,

및 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역사상 다른 시대 다른 곳에서 해야 했던 것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훌륭한 교회 교육 기구가 있고, 훌륭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으며, 훌륭한 신권 분과와, 지도자 훈련을 위한 훌륭한 체제 그리고 계보를 가르치고 선교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보조 자료를 제공하고, 어린이, 청소년 및 여성을 위한 보조 조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훌륭한 체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겠다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나라에서 교육계, 사업계, 정치 경제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대륙입니다. 길은 매우 적고, 주택은 일반적으로 이곳보다 훨씬 적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난이 깔려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는 일인당 연간 소득이 100불을 겨우 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난에 대하여 말하였읍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나 리비아나 이디오피아나 아이보리 코스트와 수단 등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이름은 일본, 베네수엘라, 뉴질랜드, 덴마크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국명입니다.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나라인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10억이나 살고 있는데 이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사분의 일이나 됩니다. 그중에 6억 6천만명이 북경 관화(표준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북경 관화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이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이 있을 때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세상의 여러 나라에는 정치적인 장애를 위시하여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인도는 어떻습니까? 7억 5천만 인구 중 2억 1천 3백만명이 힌두어만 사용합니다. 우리 중에 힌두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께서 “나의 복음을 인도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겠습니까?

1억 4천만 인구의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7천만 인구의 파키스탄이나 8천만 인구의 방글라데시, 5천 1백만명이 사는 이스라엘, 요르단, 이란 및 이락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현재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모를지라도 진리 곧 우리만이 소유하고 있는 진리를 찾아 구하고 있습니다.

버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태국에는 1억 4천 7백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 스미스의 이름에 대하여 묻게 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의 몇몇 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그러한 나라에서의 선교 사업을 중단시키고 말았읍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4천 1백만의 모슬렘 교인으로 되어 있는 터어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세계에 있는 5억의 모슬렘 교인들에게 합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랍어

를 모국어로 말하는 1억 3천만 인구에게 말하기 위하여 아랍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인구가 거의 30억이나 됩니다. 우리가 각 나라에서 약간의 시동을 걸어 줄 수만 있다면 곧 각 족속과 방언의 민족 사이에서 개종자들이 자기 동포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오른편과 왼편에 계실 것입니다. 그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것이며 그의 천사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교성 84 : 88 참조)

나는 교회 역사를 읽을 때, 이 교회의 초기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의 담대함에 놀라곤 합니다. 그들은 길을 찾은 듯합니다. 그들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앞으로 강행하여 나아갔으며, 분명히 들쭉거에 늘어지게 되어 있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두려움을 모르는 형제들이 교회가 완전히 조직되기도 전에 이미 교회 본부 근처의 인디언 땅에서 복음을 전파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십이사도는 1837년에 이미 영국까지 건너갔습니다. 우리는 1844년에 타이티에 1851년에 호주, 1853년에 아이슬란드, 그리고 1850년대에 이태리, 스위스, 독일, 통가, 터키, 멕시코, 체코슬로바키아, 중국, 사모아, 뉴질랜드, 남아메리카, 프랑스, 하와이까지 갔습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그토록 많은 진전을 보였으나 가까운 이웃에는 전혀 진보하지 못한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초기의 선교 사업의 대부분은 지도자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씨앗을 심고 집을 짓는 동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요 초월적인 신앙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이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만이 너희를 그들의 손으로부터 건져 내실 때가 있으리라... 너희는 다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업을 행하여야 하느니라”(교회 정사, 2 : 198)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은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되리라는 말을 듣고 웃을 때 그가 하신 말씀입니다. (창 10 : 14) 장막 문 앞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백세요 자신의 나이 90세로 이미 자녀를 낳을 나이가 지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알았던 것은 우리가 많은 나라의 문을 열 수 없었다고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사라는 만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을 얻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렘 32 : 27)

그가 명하신 일이라면 분명히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고레스가 강의 흐름을 바꾸어 불모의 바벨론을 취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리하이가 건널 수 없는 대양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을 기억

합니다. 나는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그
가 행하고자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행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준비
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어 주실 이
유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
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성공적으
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는 레이맨인에 대한 우리의 사업에
관하여 다른 세미나에서 이미 말한 것
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위대한 민족
은 분명히 우리의 존경과 봉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
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던 기회에
대한 빚을 지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단 한 지역에 정규 세
미나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레이맨인
이 여섯 명이나 되며 다른 지역에서도
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레이맨인들이 있
다는 보고를 받았읍니다. 불과 몇 년 전
만 해도 교사로 봉사하는 레이맨인이라
고는 전세계에서도 여섯 명을 찾기가
힘들 지경이었읍니다. 그런데 이제는 단
한 지역의 교사 모임에 여섯 명의 레이
맨인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가 이들 백성에게 다시
전파되며, 더우기 위대한 레이맨은 유
산을 가진 사자들에게 의하여 이상적으로
전파되리라는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
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업은 “사람
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단 2: 45 참조)같이 그들의 민족 가운
데로 빠르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레이맨인 세계를 회복된 복음의 축복으
로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과

에서는 점점 많은 레이맨인 젊은이들이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
고하고 있습니다. 레이맨인 지역에 스
테이크와 와드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
다. 그러한 사실은 우리를 크게 기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많
은 일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중남미의 중심에
서 레이맨인을 위한 많은 사업이 우리
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업을 겨우 시작하였읍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아랍의 형제 자매들이 지니고 있
는 정치적인 부담을 알고 있습니다. 지
금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시기이며
온 세계가 주시하며 평화를 기다리고 기
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 있
는 평화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
화뿐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아랍인,
레이맨인과 이방인들에게 가져다 주어
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해야 할 일이 많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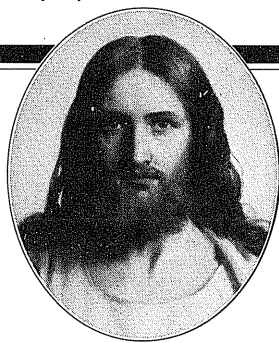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전
전시키기 위하여 항상 현명하게 움직여
야 하는 시기에는 반드시 움직여야 한
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걸음의 폭을 더욱 넓
혀야 하겠읍니다.

이 말일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
리를 모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바랍
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형제 자매 여
러분이 모두 힘껏 앞으로 내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관한 구세주의 견해



교리와 성약 인용문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었다. 그들도 농부요, 주부요, 교사요, 무두장이요, 대장장이로서... 복음이 회복되던 초기의 몇 년 동안에 복음을 받아 들인 “보통” 남자와 여자들이었다. 교리와 성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는 구세주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으며 그때가 만유의 회복의 시기요, 충만한 때이며, 만물이 하나로 모일 때임을 이해하도록 도우셨는가 하는 것이 포함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설명을 연구함으로써 그가 초기 회원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주셨던 계시를 읽고 음미할 때 더 많은 지식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다음 성구에서 이 시대와 우리

의 운명에 대한 구세주 자신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목적

“그러므로 땅의 주인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

“이 모두는 예언자들이 기록한 바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악한 것이 나아와 능력있고 강한 자를 쳐부술것이요 이로써 사람이 자기 이웃을 훈계하지 아니하여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며

“또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며,

“신앙이 땅에 증가되게 하며,

“나의 영원한 성약이 이루어지게 하며,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미약한 자와 단순한 자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전파되며 왕과 통치자 앞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니라.”(교리와 성약 1: 17-23)

“이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맞아들이기에 필요 불가결의 것임이라. 이 경륜의 시대는 이제 맞아들이기 시작되었으니, 이때에 온전하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통합과 경륜의 시대와 열쇠와 권능과 영광이 결합되어야 하고 아담의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느니라. 또 이러한 일 뿐만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밝혀지지 아니하고 현명한 자와 분열이 있는 자에게 숨겨온 일들이 이 시대 곧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어린 아이와 젖먹이에게 밝히 드러나리라.”(교리와 성약 128: 18)

“이 세대에 나의 교회는 땅아에서 일어나 나아 오기 시작하려니와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으며, 기를 세운 군대같이 두려우리라.”(교리와 성약 5: 14)

“이는 나 전능한 자가 세상 사람의 죄악을 징계하려고 여러 국민 위에 나의 손을 얹었음이니라.

“또 전염병이 퍼질 것이나 나의 사업을 완성시킬 때까지 땅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나의 사업의 기간은 의로 인하여 짧아지리라.

“드디어 그 때에는 지극히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는 자는 모두 나를 알게 되고 주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여지며 눈길이나 마주치리니, 저들이 음성을 높여 한 목소리로 이 새로운 노래를 불러 이르기라”(교리

와 성약 84: 96-98)

주께서 그의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강하게 하심

“보라, 너희는 어린 아이인지라 지금은 모든 것을 전디어 낼 수 없나니, 너희는 은혜와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여야 하느니라.

“어린 아이들이 두려워 말라. 이는 너희가 세상을 이겼음이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 속하여 있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존재하는 줄 아는 날이 오리라.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라.”(교리와 성약 50: 40-42, 45-46)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 곧 조상의 혈통을 따라 대대로 이어 내려온 신권을 지닌 너희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육체로는 정당한 상속자요,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감추인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생명과 신권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고 또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예언자의 입으로 이야기된 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너희와 너희 혈통을 통하여 반드시 보존되어야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끊임없이 나의 선을 행하며 이방인의 빛이 되며 이 신권을 통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교리와 성약 86: 8-11)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반드시 권능으로써 널리 퍼진 팔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되어야 함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도리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천사가 너희 앞장을 서거니와, 나 또한 앞장서리라. 때가 이르면 너희는 좋은 땅을 소유하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03 : 17, 19, 20)

“이 계명을 받은 자들이 이 교회의 기초를 닦아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를 회회하고 어두운 데서 이끌어 내어 온 땅 위에 세울 권능을 갖게 하려 함이니,”(교리와 성약 1 : 30)

“그런고로 나는 배우지 못하였으며 세상에서 경멸받는 미약한 자들을 불러 나의 영의 권능으로 나라를 채찍질하게 하니니,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는 저희에게 전파된 복음을 갖게 되리니, 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리라. 이는 그때가 가까웠음이니라.”(교리와 성약 35 : 13, 15)

시온에 대한 주님의 시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은 번성하여 주의 영광은 시온 위에 있으리라.

“또 시온은 백성의 기가 되리니 하늘 아래 모든 나라에서 백성들이 시온으로 나아오리라.

“그날이 이르면 만국 백성이 시온으로 말미암아 떨며 시온의 무서운 자로 말미암아 두려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교리와 성약 64 : 41-43)

“시온은 그 아름다움이 더해져야 하고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고 그 경계가 넓혀져야 하며 그 스테이크는 강하게 되어야 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온은 마땅히 일어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 : 14)

“시온은 해의 왕국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건설될 수 없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시온을 내게로 받아들이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05 : 5)

“주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야곱이 광야에서 번성하여 레이맨인이 장미처럼 피어나리라.

“시온은 산 위에 번영하며 높은 산 위에서 기뻐하리니, 내가 지정한 곳에 다 모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대로 나아가라. 너희 모든 죄를 회개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보라, 나는 너희의 향도가 되며 후군이 되리라. 또 나는 너희 가운데 있으리니, 너희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속히 오리라”(교리와 성약 49 : 24-28)

“이제 보라, 만일 시온이(나의 계명에 순종하면) 번성할 것이요, 경계를 넓혀 심히 영화롭게 되며 심히 위대하게 되며 심히 두렵게 되리라.

“세상의 국민들은 시온을 존경하여 이르기를, 분명히 시온은 우리 하나님의 도시라. 반드시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 자리가 옮기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며 주의 손이 그곳에 계시니라.

“또 주는 권세있는 능력으로 시온의 구원이 되며 시온이 높은 탑이 되리라 맹세하셨도다 하리라.

“그러므로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은 기뻐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곧 시온이니라”(교리와 성약 97 : 18-21)

✱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관하여 요셉 스미스는 무엇이라고 말했나



약 150년전에 주님은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 복음이 땅 끝까지 굴러 퍼지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채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퍼지듯이 드디어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리라”(교성 65 : 2)

교회는 그때 이후로 놀랄 만큼 성장하였다.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은 곧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1979년 3월 31일에 있었던 연차 대회에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판장은 교회 성장 실태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지난 번 연차 대회 이래로 주님의 왕국이 크게 성장하고 확장한 것을 보아 왔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시온이 발전하고 성장해 나감을 보여 주는 이 통계 수치에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회원 수는 4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곳에 신전과 예배 장소가 세워지며 …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이같이 성장해 나가는 현상에 매우 흡족한 마음입니다”(성도의 빛, 1979년 10월호, 3-4 페이지)

1830년에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서 온 세상을 채우려 하고 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회복시키신 교회가 견디어 낼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그의 왕국과 시온의 개념과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중요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시어 그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다.

교회의 150년 역사를 회고해 보면 우리 교회의 운명이 요셉 스미스가 예견한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환란을 당하여야 함”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그는 유대 왕국을 다스릴 만한 예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으며, 가장 학식이 많은 율법 학자와 신학자들과 함께 논하고, 그들의 이론과 실재를 그가 소유한 지혜로 무색케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린 소년으로서 자신을 방어할 힘조차 없었으며, 추위와 굶주림과 사망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으며,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은 이 지상에 의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온 인류에

“이 말일의 주님의 사업은 장엄하고 인간으로서의 거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에 속한다. 그 영광은 형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영화는 견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창조된 후 지금까지 모든 예언자들과 의인의 가슴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준 주제이기도 하다.”

게 평화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소년 시절에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의 원리를 옹호할 힘이 없으며, 야곱이 때가 이르러 자신을 돌볼 수 있을 때까지 고통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인내로 참아야 했던 것과 같이 참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91 페이지)

성도들은 록키 산맥에 살게 됨

나는 성도들이 계속 핍박을 받을 것이고, 록키 산맥으로 쫓겨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며, 또 몇몇은 살아 남아 록키 산맥에 도시를 세우고, 성도들이 강대한 백성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9 페이지)

“이 사업은 록키 산맥이 수많은 말일 성도로 가득차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장로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그 산 중에 사는 레이맨인들도 합류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 통합되어 훌륭한 일을 많이 할 것입니다.”(윌포드 우드럽의 설교집, 30페이지)

“축복받은 민족”

“시온 건설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으며, 예언자, 제사장 및 왕들의 특별한 기대를 안고 주목했던 주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이날을 노래하고 글로 쓰고 예언하였으나 결국 보지 못

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일의 영광을 가져 오도록 택하신 은총을 입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만 말일의 영광이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고, 참여하며,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말일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요, 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모으시되” “하나로” 모을 것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하나로 모일 것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로 모이고, 악한 자들도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함께 모여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신권은 땅의 신권과 하나가 되어, 이 위대한 목적을 수행하게 되며, 우리가 이처럼 단합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룩하려 할 때, 하늘의 신권은 방관자로 앉아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은 위로부터 쏟아져 내릴 것이며,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가장 높이신 이의 축복이 우리의 장막 안에 있을 것이며, 우리 이름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 빛나며, 우리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우리를 가리켜 축복받은 백성이라 부를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우리가 이미 겪은 환란과 우리가 견딘 궁핍을 특별한 기쁨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보인 치절 줄 모르는 열의, 영광과 축복을 가져다 준 사업의 기초를 놓는 데 겪었던 극심한 어려움, 하나님과 천사들이 지나간 세대를 위하여 기쁨으로 계획하셨던 사업, 고대 축복사들과 예언자들의 영혼을 매료시켰던 것, 암흑의 권세를 파하고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업 등을 기쁘

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27-228페이지)

모든 대륙, 모든 귀에게

“우리 선교사들이 수많은 나라로 나가고 있으며, …진리의 표준이 수립되었다. 신성하지 못한 사람의 손이 발전하는 주님의 사업을 향단시킬 수 없다. 박해가 일어나 격심해지고, 군대가 집합되고, 중상이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대륙, 모든 나라 곳곳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의 귓전에 울릴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다 이루어졌도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는 담대하고 숭고하며 자유롭게 계속 전파될 것이다.”(교회 정사, 4: 540)

“장엄하고 영화로운 사업”

“이 말일의 주님의 사업은 장엄하고 인간으로서의 거의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에 속한다. 그 영광은 형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영화는 견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창조된 후 지금까지 모든 예언자들과 의인의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주제이기도 하다. 지금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이 말하여 온 때가 찬 경륜의 시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만물이 그를 통하여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때이다.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 시대에 성취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일에 성취될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에 속하며, 성도들의 정력, 기술, 재능 및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업은 예언자들이 묘사한

영광과 존귀를 지니고 퍼져 나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위엄이 있고 영화로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집중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교회 정사, 4: 185-86)

“말일에 하나님의 위엄을 안고 머리를 든 말일성도의 교회, 즉 요지부동의 바위와 같이 거센 폭풍과 풍랑에도 휘말리지 않으며 아직도 무서운 핍박과 반대를 견디면서 우연히 서 있는 이 교회가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의의 원수가 거짓의 쇠스랑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광포를 떨지라도 결코 멸망할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는 이 교회가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원수가 계속 악을 조장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의인과 악인을 보다 잘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97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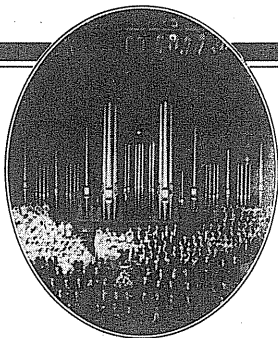
“제사장과 열왕의 왕국”

“이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종들과 백성에게 왕국의 고대의 반차를 회복하기 시작한 때이며, …만물이 경륜 중에서도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충만한 복음을 완성시키는 때이며 고대의 예언자들과 현자들이 보고 싶어했으나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기 시작하여 그의 교회에 두기 시작한 때이다.

이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숨겨져 있었다. 또한 이것은 여호와께서 합당한 때가 이르면 이 지구가 그의 영광 곧 해의 왕국이 되도록 준비하도록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이다.(교회 정사, 4: 492-93)

✱

교회 150년사



1805

12 월 23일, 요셉 스미스 이세가 요셉과 루시 맥 스미스의 네번째 아이로, 버몬트주 쉐론에서 태어났다.

1820

요셉 스미스의 첫번 시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어느 교회에 가입하여야 하느냐는 그의 질문에 응답해 주셨다.

1823

9월 21—22일. 부활한 모로나이 천사가 요셉 스미스를 다섯 차례 방문하여 고대 금판이 묻혀 있는 곳을 밝히고, 그에게 복음을 회복시키고 물몬경을 번역하여야 하는 그의 역할을 지시해 주었다.

1827

1월 18일. 요셉 스미스는 뉴욕주 사우

스 베인브리지에서 엠마 해일과 결혼하였다.

9월 22일. 요셉 스미스가 구모라 언덕에서 모로나이로부터 물몬경의 판을 받았다. 그는 또한 번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우림과 둠뎀도 받았다.

1829

5월 15일.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아론 신권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시받은 대로 서로를 침례하였다.

5월 또는 6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와 뉴욕주 콜레시빌 사이를 가르는 서스캐하나강 근처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였다.

6월. 물몬경 번역이 완성되었고, 세 목격자—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가 시험으로 판을 보

왔다. 다른 여덟 증인들—크리스찬 휘트머, 제이콥 휘트머, 피터 휘트머 이세, 존 휘트머, 하이람 페이지, 요셉 스미스 일세, 하이람 스미스 및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의 간증이 곧 이어졌다.

1830

3월 26일. 물문경이 출판되었다.

4월 6일. 요셉 스미스가 합법적인 규정에 따라 6명의 법인 설립자들과 함께 뉴욕주 페이에트에 있는 피터 휘트머 일세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하였다. 6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요셉 스미스 이세, 올리버 카우드리, 하이람 스미스, 피터 휘트머 이세, 데이비드 휘트머,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

4월 11일. 올리버 카우드리가 휘트머의 집에서 열린 모임에서 처음으로 대중 설교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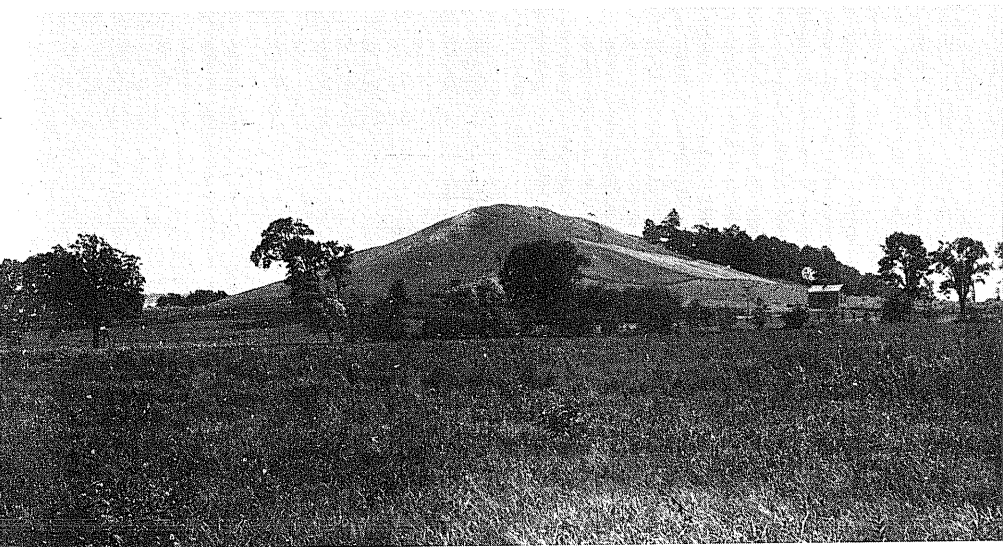
1830

6월. 후에 값진 진주에 편입된 “모세의 시현”이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되었다. “모세의 문서”는 12월에 첨가되었다.

6월 9일. 교회의 첫번째 대회가 27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페이에트에서 개최되었다.

6월 30일.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가 교회의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로서 뉴욕 지역 근처로 갔다.

10월 17일. 4명의 선교사들이 뉴욕주의 캐터라거스 인디안들에게, 오하이오의 와이안도츠족, 그리고 미주우리의 샤니스족과 들라웨어족에게 선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들에게 가는 도중 오하이오에서 시드니 리그돈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침례를 베풀었다.



구모라 언덕. 조지 앤더슨(1860—1828)이 찍은 이 초기 은판 사진은 요셉 스미스가 요셉 스미스 2서 51절에서 묘사한 것과 같이 주위 환경에서 우뚝 솟아 있는 언덕을 보여 주고 있다.

1831

2월 4일. 에드워드 패트리지가 “교회
의 감독”이 되었다. (교성 41:9)

8월 2일. 미주우리주, 잭슨군, 카우타
운첩에서의 축제에서 시드니 리그돈은
시온의 땅을 헌납하였다. 요셉 스미스
는 그 다음날 신전 부지를 헌납하였다.

1832

1월 25일. 요셉 스미스가 오하이오주
암허스트에서 열린 대회에서 대신권 회
장으로 지지되었다. 후에 시드니 리그돈
과 제시 거즈가 보좌로 임명되었으며,
이 대관장단은 3월 8일에 있는 계시에
서 확인되었다. 지즈는 1833년 초에 프
레데릭 지 윌리엄즈와 교체되었다.

2월 16일. 성경의 영감역을 착수하고
있는 동안,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
돈은 영광의 시험을 보았다. (교성 76편)

6월 1일. 최초의 말일성도 출판물인
이브닝 앤드 모닝 스타지가 윌리엄 더블
류 펠프스를 편집인으로 하여, 미주우
리주, 인디펜덴스에서 출판되었다.

1833

가을. 선교 사업이 캐나다까지 확장
되었다.

11월. 성도들이 폭도들의 위협과 공격
을 받아 미주우리주 잭슨군을 떠났다.

12월 18일. 요셉 스미스 일세가 교회
의 초대 축복사로 성임되었다.

1834

2월 17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스테이크의 부장단과 고등 평의회가 선
택되었다. 이와 비슷한 조직이 1834년
7월 3일에 미주우리에 창설되었다.

5월 1—7일. 시온의 진영이 추방당한

미주우리의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오하
이오주 커틀랜드로부터 미주우리주, 클
레이군까지 진군하였다. 진영은 6월 30
일에 해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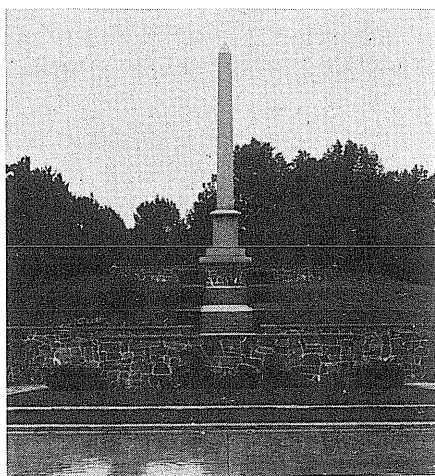
1835

교회에서 엠마 스미스가 선정한 성곡
과 찬송곡 모음집을 출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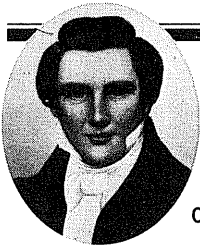
2월 14일. 물몬경의 세 목격자들이 오
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열린 시온의 진
영 회원들과 다른 형제들의 모임에서 십
이사도를 선정하여 십이사도 정원회가
조직되었다.

2월 28일. 칠십인 제일 정원회와 그 정
원회의 일곱 회장들이 각기 임명되었다.

7월 3일. 마이클 에이치 캔들러씨가
애굽의 미이라와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전시하였다.
이 두루마리를 요셉 스미스가 번역한 것



요셉 스미스 기념탑. 버몬트주, 웨튼읍에서 예
언자 요셉 스미스가 태어난 후 100주년이 되던 19
05년 12월 23일에 38 1/2피트 높이의 이 탑이 그
의 출생지에 세워졌다. 이 탑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에 의하여 헌납되었다.



요셉 스미스 이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일의 예언자들의 간증

“나의 친구,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안식일 오후였다. 성찬 집행(십이사도 정원회와 함께 성찬에 참석하였음)을 도운 후 요셉 스미스는 커틀랜드 신전의 휘장 위의 설교단으로 갔다. 그곳에 그는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엄숙하게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일어나려 할 때 영광스러운 시현이 그들 두 사람 앞에 열렸다.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에 있는 설교단 홍벽 위에 서 계시더라. 주의 발 아래는 호박색 순금이 깔려 있고,

“그의 눈은 불꽃같고 머리털은 그 희기가 깨끗한 눈같고 그 얼굴은 햇빛 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음성은 격한 홍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 너희의 중보자니라.”(교리와 성약110: 2-4)

이것은 예언자 요셉이 구세주로부터 개인적인 방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록한 여러 가지의 기록 중의 한 예이다. 이와 같은 방문은 실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문으로 말미암아 이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되었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만유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세주에 대한 개인적인 지식은 요셉의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 경륜의 시대 초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 대관장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

Joseph Smith, Jr.

이 아브라함서이며, 후에 값진 진주에 포함되었다.

8월 17일. 커틀랜드 교회에서 일반 회중이 교리와 성약으로 출판할 계시들을 받아들였다.

1836

3월 27일. 커틀랜드 신전이 헌납되었다.

4월 3일.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커틀랜드 신전에서 구세주, 모세, 일라이어스, 그리고 엘리야의 시현을 받았다.

6월 29일. 미주우리주 클레이군의 주민들의 모임에서 그들은 성도들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였다. 12월경에 많은 회원들이 미주우리주 칼드웰군에 다시 자리잡았다.

1837

팔리 피 프랫이 경고의 음성이라는 최초의 교회 선교용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6월 4일. 히버 시 김볼과 올슨 하이드가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열도록 부름받았다. 조셉 필딩스미스, 윌라드 리차즈 및 몇몇 장로들이 6월 12-13일에 선교 여행을 떠났다.

1838

7월 4일. 교회 당국은 미주우리주 파웨스트에 예정된 신전을 짓기 위한 모퉁이 돌을 놓았다.

7월 6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부터의 “커틀랜드 진영”의 대이동이 칠십인제1 정원회의의 지시아래 시작되었다. 이 그룹은 커틀랜드에서 마지막으로 퇴거했다.

9월 21일. 폭도들이 미주우리주, 캐롤

군, 드위트에서 성도들을 위협하였고, 그들의 위협은 10월 11일까지 계속되었으나, 주지사 린번 더블류 보그스씨는 물문의 군사 지원 요청을 거부하였다.

10월 26일. 보그스 주지사는 미주우리에서 추방하거나 근절시키라는 명령서를 발표하였다.

10월 23일. 힌즈 밀 학살에서 열 일곱 명의 말일성도가 죽었다. 이 공격은 보그스 주지사의 근절명령을 실제로 실시한 것이었다.

11월 1일. 군정은 요셉 스미스와 다른 형제들에게 사살을 명하였으나 육군 준장 에이 더블류 도니판은 이 명령에 불복하였다. 수감자들은 그 당시 미주우리주 리치몬드 감옥에 수감되었다.

11월 10일. 죄인들의 심문과 두주간의 공판이 시작되었으며, 그 후에 요셉 스미스와 다른 형제들은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었다.

1839

1월 26일. 브리감 영과 십이사도는 성도들을 미주우리에서 이동시키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4월 26일. 십이사도와 다른 사람들이 파웨스트에서 회회를 가졌고, 그 후에 십이사도는 계시(교성 118편)를 받고, 대영제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났다.

5월 10일. 요셉 스미스는 일리노이주 커머스 근처에 거주지를 잡고, 그곳의 땅을 새로운 집합지로 구입하였다. 그곳을 나부라고 이름지었다.

10월 6일. 커머스(나부)가 세개의 와드로 나뉘어지고 각 와드에 감독이 있게 되자, 감독의 관리를 받는 와드를 중심으로 교회를 지리적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11월 29일. 마틴 반 뷰렌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요셉 스미스를 접견하고 정부는 미주우리의 난동을 제재할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국회에도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반 뷰렌 대통령과의 제 이차 접견이 있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1841

1월 19일. 나부에서 주어진 계시(교성 124편)는 나부에서의 신전과 기숙사를 짓는 것에 대한 유의 사항이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가 신전 의식으로 소개되었다.

1월 24일. 하이람 스미스가 교회 축복사로 성임되었다. 이는 그의 부친이 1840년 9월 14일에 사망하자 그 대신에 보완되었다. 또한 파문당한 올리버 카우드리를 대신하여 대관장 보조에 성임되었다.

10월 24일. 올슨 하이드가 감람산에서 팔레스타인을 유대인의 집합지로 헌납하였다.

1842

3월 17일. 요셉 스미스는 엠마 스미스, 사라 엠 클리브랜드, 엘리자베스 앤 휘트니를 회장단으로 한 나부 여성 상호부조회를 조직하여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돌보게 하였다.

1843

7월 12일. “결혼 성약의 영원성과 복수 결혼”에 관한 계시(교성 132편)가 1831년에 이미 언급되었던 “새롭고 영원한 성약”의 완전한 의미와 함께 기록되었다. 예언자는 이 교리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설명하였고, 복수 결혼은

1841년에 시행되었다.

1844

1월 29일. 나부의 정치 회의에서 요셉 스미스를 미합중국 대통령 입후보자로 지명하였다.

6월 12일. 예언자가 내란죄로 6월 12일에 체포되었다. 그는 재판에 맞설 자신을 포기하였으며, 그를 죽이려 한다는 음모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6월 22일. 요셉 스미스와 하이람 스미스가 영국으로 도망가기 위하여 미시시피강을 건넜다. 포드 주지사는 그들의 안전을 약속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의 간청으로 그들은 나부로 돌아와 정부 관리에게 체포당하였다.

6월 25일. 요셉 스미스와 하이람 스미스 및 다른 몇몇 형제들이 일리노이주 카테지에 감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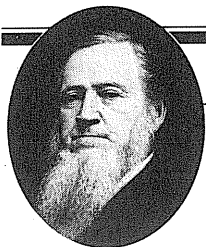
6월 27일. 요셉과 하이람 스미스는 카테지 감옥에 무장난입한 폭도들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존 테일러는 그 공격에서 부상당하였으며 윌라드 리차즈는 부상을 면하였다.

8월 4일. 시드니 리그돈이 나부에서 열린 모임에서 교회의 수호자를 지명할 것을 주장하였다.

8월 8일. 수호자 임명을 위한 모임에서 시드니 리그돈이 다시 자신의 견해를 밝혔고, 그 후에 브리감 영이 오후 모임을 발표하였다. 오후 모임에서 영은 십이사도가 지도권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그것은 교회 회원의 거수 표결로 지지되었다.

1845

5월-6월. 요셉과 하이람 스미스를 살해한 혐의로 고소된 9명의 피고들이 법



브리감 영

“나 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하며 주님의 말씀은, 기록된 것이거나 입
으로 말해진 것이나, 모두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떠한 사람이 이 말을 진실로 간
증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며,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기독교 세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호하게 성경(특히 신약)이 참되다고 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계획이 들어 있으며 그것은 참되다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에 거리낌없이 그렇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살아 계시는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기독교
세계의 신도들은 스스로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신 자들 이외에는 지상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고전 2 : 1-16 : 123)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 계시다고 믿는 다고 양심에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을
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우리는 이 지상에 단 한 무리 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예수께서 살아 계시고 그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
을 담대하게 강조하며 외칠 수 없습니다. (조셉 필딩 맥콩키, 설교집[솔트레이크시
티 : 북크레프트사, 1975년] 52—53페이지) *

Brigham Young

정에서 무죄를 언도받았다.

9월 9일, 교회 지도자들은 대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이주하여 성도들의 안식처를 세울 의도를 밝혔다.

1846

5월 1일, 나부 신전이 헌납되었다.

7월 13일, 미합중국 군대가 두 주간의 여유를 두고 브리감 영에게 보낸 명령서에 응하여 물론 대대의 지원병 제1군이 지원하였다.

9월 17일, 나머지 나부 성도들은 항복조약을 위반하여 그 도시에서 추방당하였다.

1847

1월 14일, 브리감 영이 마차 부대를 조직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서부로의 여행

에 관한 지시 사항을 발표하였다. (교성 130편)

7월 22—24일, 브리감 영이 이끄는 개척단이 4월 5일 윈터 쿼터스를 떠나면서 시작된 긴 여로를 마치면서 성도들을 위한 정착지인 대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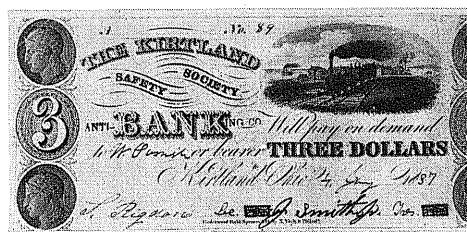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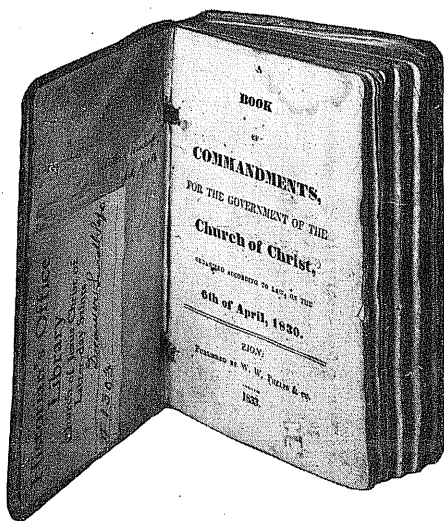
7월 28일, 브리감 영이 솔트레이크 신전을 지을 부지를 선정하였다.

12월 5일, 브리감 영을 대관장으로, 히버 시 킴볼과 윌라드 리차즈를 보좌로 한 대관장단이 재조직되었다. 그들은 1847년 12월 27일에 지지되었다.

1848

5월—6월, 메뚜기 떼가 물론 농작물에 큰 해를 주었다. 그때 갈매기들이 낱아와 메뚜기를 잡아먹어 큰 재앙을 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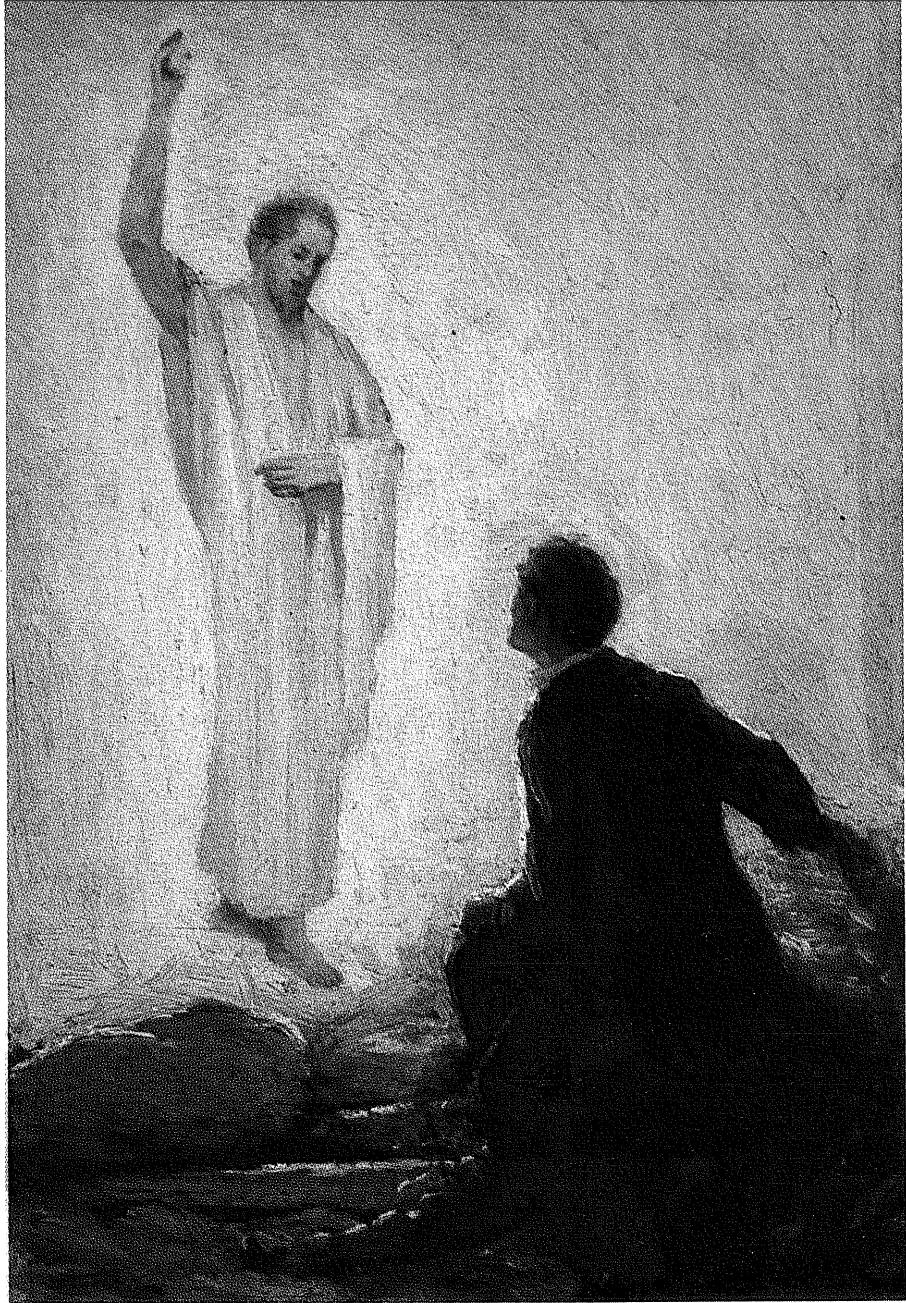
그리스도 교회의 통치를 위한 계명의 책, 교회와 성약의 전신인 이 책은 1833년에 최초로 교회에서 출판되었다.



커틀랜드 세이프티 소사이어티 안티 뱅킹 컴파니 3달러 1837년경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말 일성도들이 사용하였던 화폐. 직원이 주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은행이라는 단어가 비금융체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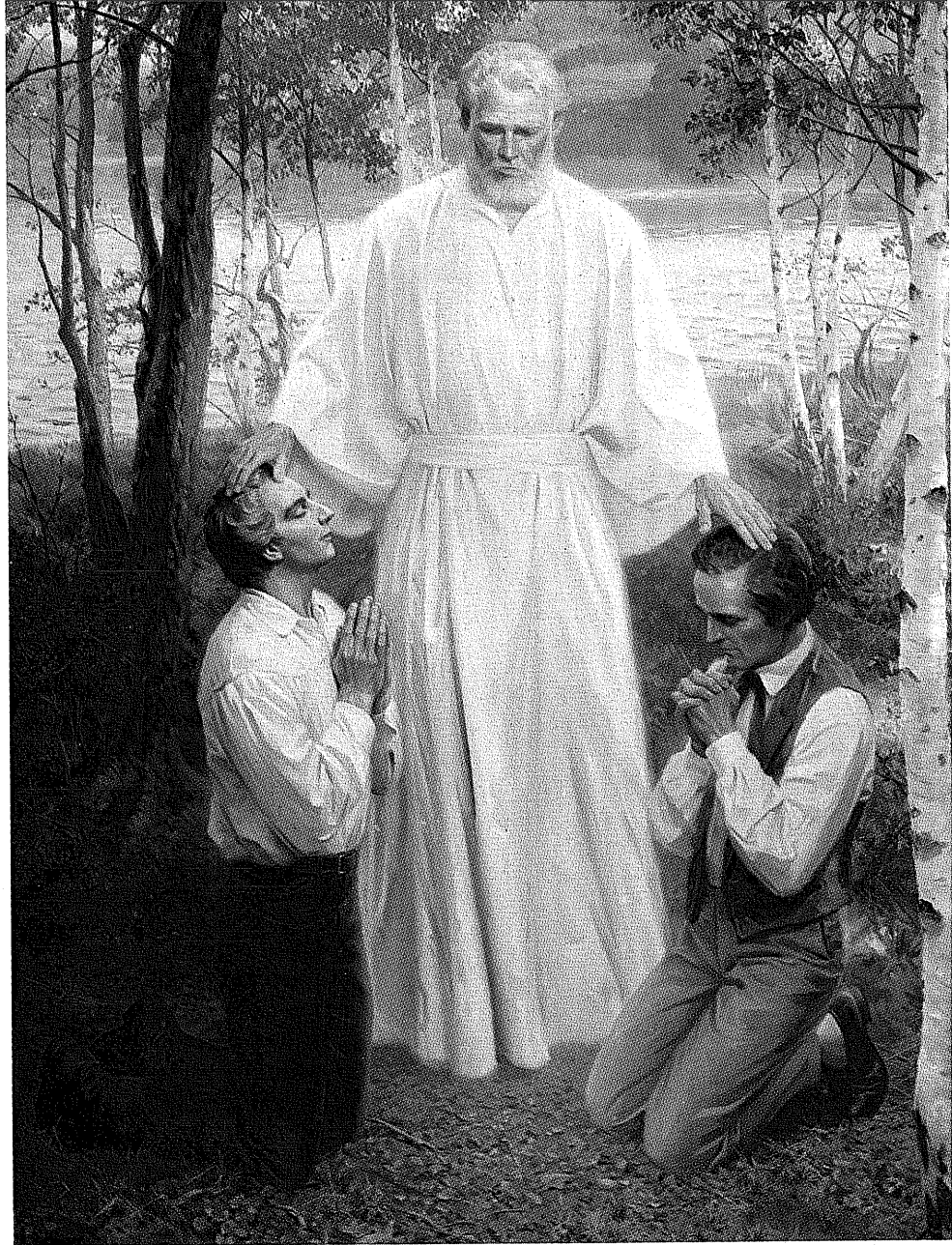
오늘날의 성스러운 숲. 아버지와 아들이 소년 예언자에게 나타나셨고, 말일에 새로운 복음의 경륜의 시대가 이곳에서 시작되었던 때로부터 160년이 지난 오늘날의 모습이다. 이 숲은 지금도 이곳을 방문하는 교회 회원의 마음 속에 경건한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 엘든 케이 린쇼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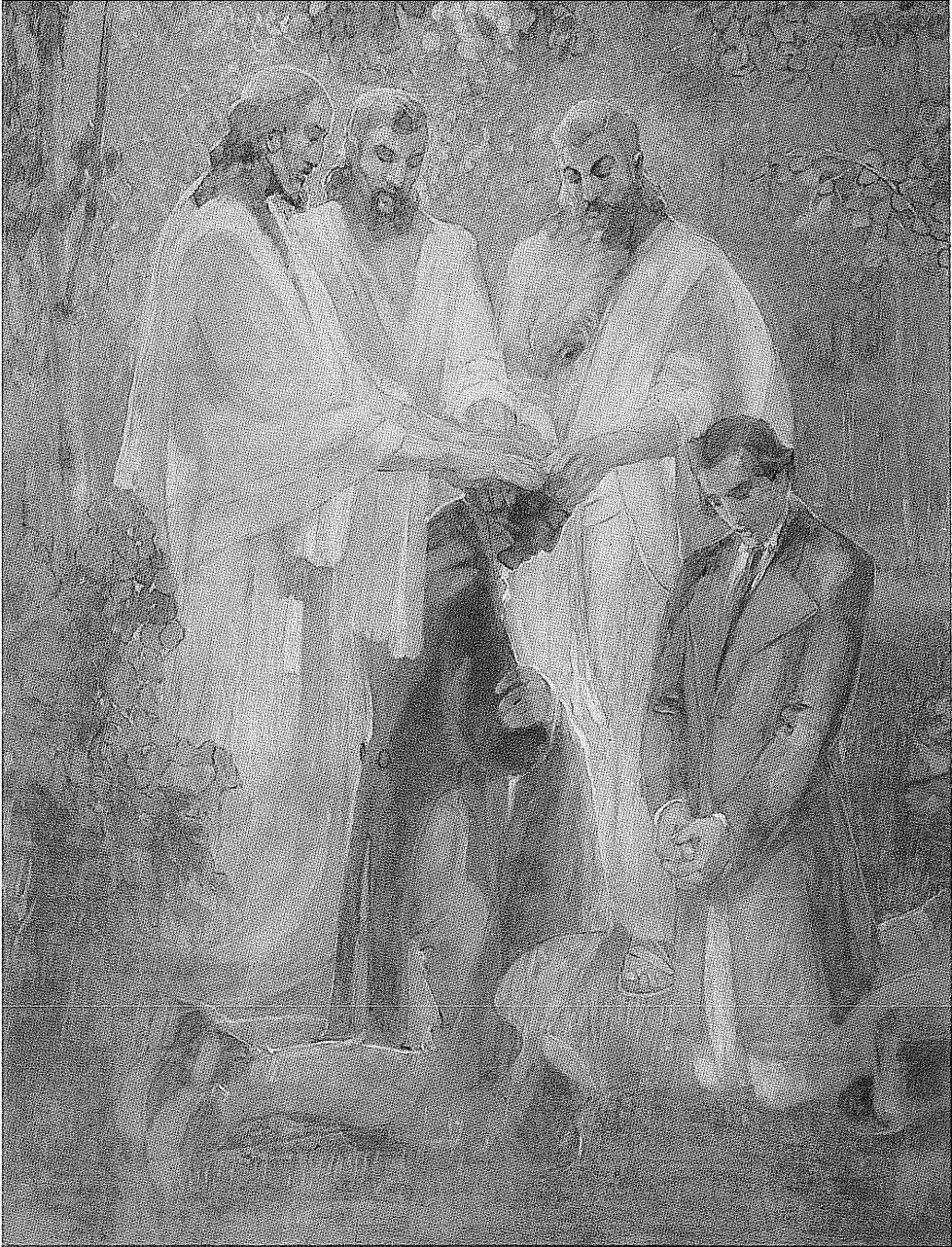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 모로나이 천사는 1823년부터 1827년까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서 그의 성역과 복음의 회복에 대비하여 요셉을 준비시켰다. 존 헤이폰(1856—1910)의 작품인 이 그림은 모로나이로부터 요셉이 금판을 받으려고 준비할 때 구모라 언덕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다.



요셉이 판을 받음. 요셉은 1827년 9월 22일에 모로나이에게서 판을 받았다.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이 상감 목판은 1970년경 브라질의 미술가, 막스 레슬러씨가 브라질산 각종 나무로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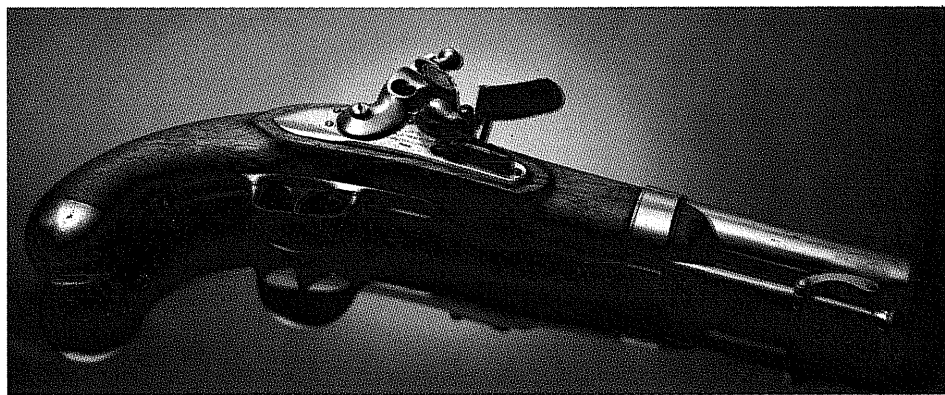
아론 신권 회복. 침례 요한은 1929년 5월 15일, 사스케하나 강둑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회복해 주었다. 롬 리벨 그림



멜기세덱 신권 회복. 고대의 관리 사도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1829년에 요셉 스미스 2세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방문하여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고 그들을 거룩한 사도의 직분에 성임하였다. 1934년 경 미널바 테일러트가 그린 것을 1948년에 다시 손질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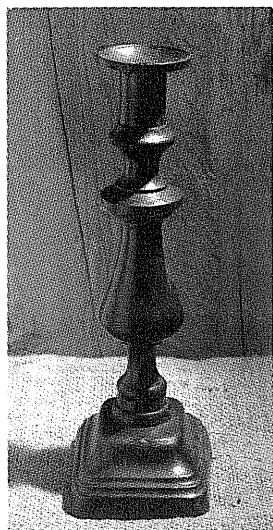
골무. 1835년 2월 시온의 진영에서 브리감 영이 사용하였던 골무. 이것은 교회 초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물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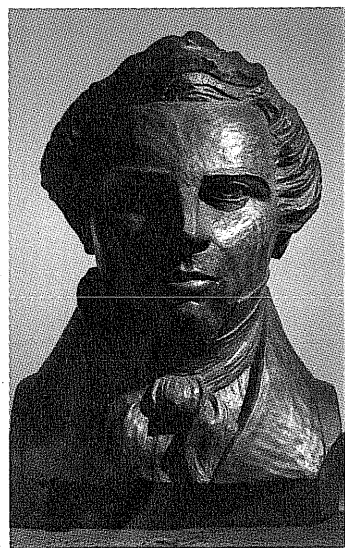
요셉 스미스의 권총. 나부 군단을 지휘할 때 사용하던 총이다(1840—44)



토기 그릇, 히버 시 킴볼이 만든 그릇 (1831—39년 사이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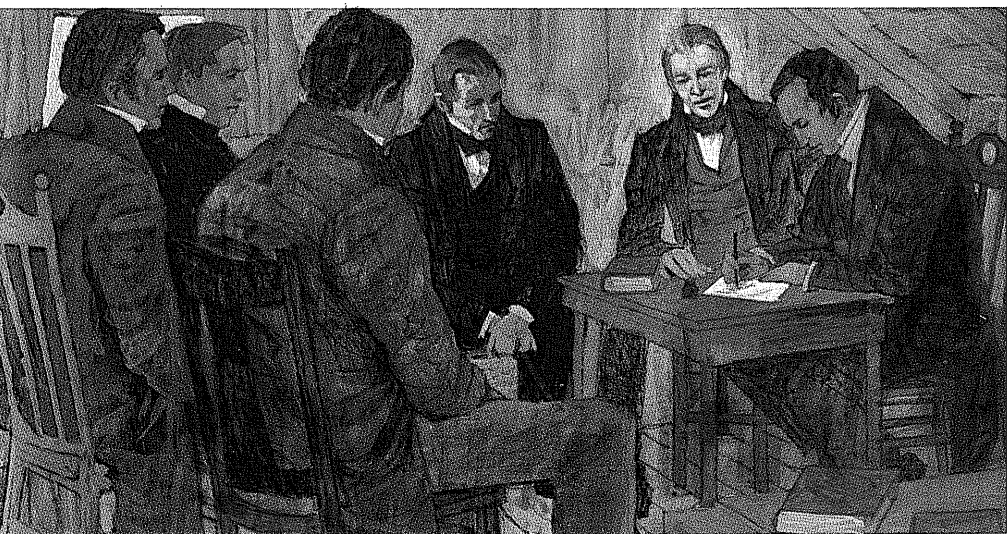
촛대, 일리노이주 나부의
맨션 하우스에 있던 촛대. 이
촛대는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요셉과 엠마가 사용하였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흉상, 1970년경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에파도르 미술가가
만든 목각 흉상.



아이캐리언의 나부 그림 1859년경 조안 슈로더가 미시시피강 건너 편에서 나부를 보고 그린 그림이다. 아이캐리안은 성도들이 서부로 향하여 나부를 떠난 후에 나부에 정착한 민족이다.



윌리엄 휘티커 그림, 1971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조직은 150년 전 1830년 4월 6일 뉴욕주, 페이에르 피터 휘트머 일세의 통나무집에서 이루어졌다. 공식적으로 교

회 조직자로서 기록된 6명은 요셉 스미스 이세, 올리버 카우드리, 하이람 스미스, 피터 휘트머 이세, 데이비드 휘트머 및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이다.



미시시피강 건너편에서 본 나부. 1907년 조지 앤더슨 (1860—1928)이 찍은 사진.

1849

솔트레이크시티의 리차드 발렌타인 주일학교가 교회에서의 주일학교를 시작하였다.

3월 5일. 임시 데저레트주가 설립되었고 자치 정부로서의 신청서가 제정되었다.

10월. 가난한 자들의 집합을 돕기 위하여 연차 대회에서 영구 이민 기금이 설립되었다. 이 체제는 1887년까지 계속되었다.

1850—54

교회 선교부가 스칸디나비아, 불란서 이태리, 스위스, 하와이, 남태평양, 인도, 말타, 지브롤터, 독일,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시작되었으나 대부분이 몇 년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로렌조 스노우가 이태리에서 에라스투스 스노우가 덴마크에서, 그리고 존 테일러가

불란서에서 선교의 문을 열었다.

1851

9월. 연방 정부로부터 임명된 관리들은 복수 결혼을 반대하고, 그 지역 내에서 정치적인 문제에 관한 교회의 부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간주하고 유타를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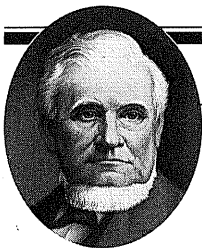
1852

8월 28, 29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특별 대회에서 복수 결혼의 교리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1853

4월 6일. 솔트레이크 신전을 위한 모퉁이 돌이 놓였다.

1856



존 테일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낳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을 받았고, 만물이 그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만물의 머리요, 그가 만물 곧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권세이 거나 보좌이거나, 통치력이거나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또한 그를 위하여 지어졌으며,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고전 1:13-19; 히 1:1-3; 요 1:1-3. 교성 76:24)

“모든 만물이 그로 인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상은 그가 창조하신 것이며, 그를 위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세상의 합법적이고 마땅한 주인이며 통치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성품과 올바른 가치를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같은 위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결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과 역경의 깊이, 힘 그리고 그 세력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해와 경험으로써 아버지요 만형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서 그와 똑같은 영광과 승영과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가 겪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그와같이 인내하여야 하며, 그가 한 것과 같이 승리하고 극복하여,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들 앞에서 고결한 성품, 진리, 덕, 순결을 통해서 그가 한 것처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승영을 스스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집, 182페이지) *

John Taylor

6월 9일, 첫번째 손수레 부대가 아이오와주 아이오와 시티를 떠났다. 같은 해에 2개 조의 손수레 부대는 겨울이 일찍 다가오는 바람에 큰 비극을 겪었다. 손수레에 의한 이주 방법은 1860년까지 계속되었다.

1857

3월 30일, 앞서 유타 준주를 떠났던 준주 판사 더블류 더블류 드러몬드는 미연방 변호사에게 물몬 지도자들을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5월 13일, 십이사도 평의회의 팔리 피프렛 장로가 알칸사스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도중에 살해되었다.

5월 28일, 제임즈 부캐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대가 캔사스주 리븐워스 요새에 집결하여 유타로 진군하였다. 그들은 유타 주민들이 미합중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유타 전쟁”의 발단이였다.

7월 24일, 브리감 영은 앨버트 시드니 존스톤 대장의 지휘하의 군대가 유타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받았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이 국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았다는 종래와 같은 입장을 확인하고 그들을 그 지역에서 몰아내려는 어떠한 군대의 침입도 용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9월 15일, 브리감 영은 전 유타주에 제엄령을 선포하고, 군대가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무장한 민병들에게 군인들을 계속 공격하여 그들이 계곡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을 명령하였다. 그는 또한 외국 선교부에 나가있는 장로들을 소환하여 성도들에게 교회의 본부에서 가까운 곳으

로 돌아와 정주하도록 권고하였다.

1858

6월 26일, 물몬의 지연 작전으로 인하여 겨울을 지내기 위하여 휴전한 후 존스톤 대장의 군대는 평화스럽게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왔다.

1860

9월 24일, 성도의 마지막 손수레 부대가 솔트레이크시티에 입성하였다.

1860

7월 8일, 일련의 연방 국법의 첫번째 법안이 복수 결혼을 일부다처의 죄로서 가결되었다.

1863

3월 10일, 브리감 영 대판장이 일부다처의 죄명으로 체포되었고, 존 에프 키니 판사는 2,000불의 보석금을 걸었다. 그러나 사실상 그는 재판을 받지는 않았다.

1867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템플 스퀘어의 태버넌클이 완공되었고, 그곳에서의 최초의 대회가 10월 6일에 개최되었다.

12월 8일, 브리감 영 대판장은 각 감독에게 각자의 와드에서 상호부조회를 재조직하도록 요청하였다. 상호부조회는 유타 전쟁 중에 해체되었다.

1869

5월 10일, 대륙 횡단 철도가 유타주 프로몬토리 씨밀에서 완공되었다.

11월 28일, 정녀 절제회가 브리감 영에 의하여 조직되었으며, 이것은 후에



윌포드 우드럽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셨을 때, 그는 영원한 복음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는 친히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왔으며,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제시해 주었으나, 그는 모든 유다 지파 가운데서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요 9:24)이다. 이와같은 그들의 적대심은 못 박혀 돌아가셨던 십자가에까지 쫓아 왔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이 메시아를 죽이기만 한다면 그의 이 지상에서의 사명과 사업이 끝이 나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의 소망은 현세대의 사람들의 소망처럼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로 끌고 갔을 때, 영이 그의 슬픔 많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그가 육신의 몸으로 있었을 때와 똑같은 힘과 권세와 영광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무덤에 누워 있을 동안 나사렛 예수께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서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그곳에서의 사명이 끝나자 그의 영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원리까지도 말살시켜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는 무덤을 이기고, 그가 육신으로 있었을 때 지니고 있던 모든 권세와 열쇠를 그대로 지닌 채 영광과 영생으로 가득 찬 불사 불멸의 몸으로써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몇몇 여인들과 사도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이 대륙의 니파이인들에게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열 지파에게 가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불사불멸의 몸으로 그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십이사도들도 역시 환영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갈기갈기 찢겨졌고, 어떤 이는 목을 베었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르친 원리를 말살시켰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파파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듯이 이러한 것에 대하여도 권세를 지니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

Milford Woodruff

청녀 상호 향사회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1월 13일, 국회에서 미결 상태에 있는 반몰몬 입법에 대항하기 위하여 솔트레이크시티의 여성들이 큰 회의를 열었다. 이 모임과 이와 같은 다른 여러 모임들은 몰몬 여성들이 반몰몬 주장과는 달리, 유타의 종교 지도 체제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주었다.

2월 12일, 유타가 미국 내에서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최초의 주 또는 준주가 되었다.

10월 2일, 브리감 영 대판장이 일부 다처 시행죄로 체포되었다. 여러 가지의 법적인 절차가 1872년 4월 25일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동안 영 대판장은 때로 자택에 감금되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은 18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반복시킨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각되었다.

1872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에 대한 법정 절차가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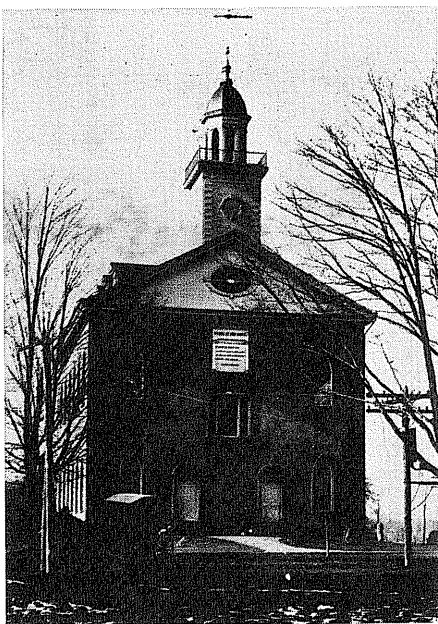
1874

5월 7일, 이날부터 시작된 교회 연차 대회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협동 교단”이었다. 이것은 결국 광범위한 협동 경제 체제의 확립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875

6월 10일, 최초의 청남 상호 향사회가 솔트레이크시티 제13 와드에서 조직되었다.

10월 16일, 브리감 영 아카데미가 유



커틀랜드 신전.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최초의 신전은 모퉁이 돌을 놓았던 1833년 7월 23일부터 큰 기쁨과 시헌 가운데 요셉 스미스가 헌납한 1836년 3월 27일까지 모든 성도들의 큰 희생으로써 건축되었다. 1905년 사진.

타주, 프로보에 설립되었다. 이것은 후에 브리감 영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1877

4월 5일, 세인트 조지 신전이 세인트 조지에서 열린 제47차 연차 대회와 연관하여 헌납되었다. 이 신전은 유타주에서 완공된 최초의 신전이다.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최초로 죽은 자를 위한 인봉 의식이 수행될 수 있었다.

4월—8월, 영 대판장은 십이사도에게 스테이크, 와드 및 정원회를 철저하게 재조직하도록 지시하였고, 교회 회원을 위한 광범위한 신권 실행과 표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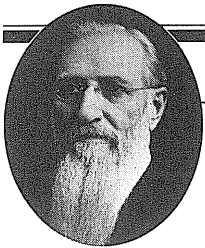


로렌조 스노우

“내가 침례를 받고 2—3년이 지난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내가 아직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확실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알리라’(요 7:17)라는 약속이 성취된 것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매우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책을 덮어 두고 집을 나와서 우울하고 실망에 찬 마음으로 광야를 이리저리 방황하였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검은 구름이 나를 뒤덮고 있는 듯했습니다. 나는 하루가 끝날때 쯤에는 은밀한 기도를 하기 위해 나의 숙소에서 약간 떨어진 숲속으로 가는 것이 습관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영은 떨어지고 하늘은 낮췄다’같이 보였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항상하던 기도를 그만둘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항상 하던 것처럼 무릎을 꿇었지만 내가 항상 하던 것과 같은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려고 막 입을 여는 찰나에 바로 내 머리 위에서 명주옷 스치는 소리가 나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와 완전히 나의 전신을 뒤덮고 나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나의 기쁨은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적이며 영적인 암흑의 질은 구름이 빛과 지식의 광채로 즉시 변하는 것을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으며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스러운 신권의 회복과 충만한 복음을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침례였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큰 기쁨과 신성한 빛 속에 있었는가를 알 수 없지만 몇 분이 지나서 나를 채우고 둘러싸고 있던 해의 영광의 요소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펴고 일어날 때 나는, 전능자만이 허락할 수 있는 것 즉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부와 영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내가 쉬기 위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똑같은 기이한 나타나심이 반복되었고 며칠 밤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내 온 몸을 채우는 영예스러운 경험들이 내 앞에 생생하게 기억되며 나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매관장, 61페이지)

Lorenzo Snow *



조셉 에프 스미스

“나 는 온 몸을 사로잡을 만한 확신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드립니다. 이 간증은 나의 마음 속 깊이 들어 있으며, 나의 영혼을 속속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백성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이심을 나에게 밝혀 주었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나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으며, 그 진실함을 간증드립니다. 이 말씀이 내가 지상에서 해야 할 마지막 말이라면, 내 영혼 속에 이같은 지식을 갖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며, 하나님께서 그 왕국을 다스리고 계심을 압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감리하고 계십니다. 그는 예언자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교회의 대관장을 감리하고 계시며, 세상의 종말이 이를 때까지 계속 교회 지도자들을 감리하실 것입니다.”(포레이스 그린 편집, 지도자들의 간증[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58년] 47페이지)

✱

Joseph F. Smith

8월 29일. 브리검 영 대관장이 솔트레이크시티의 자택에서 운명하였다.

9월 4일. 존 테일러가 회장인 십이사도 평의회가 교회 최고 지위를 맡기로 공포하였다.

1878

8월 25일. 최초의 초등협회 모임이 유타주 파밍톤에서 열렸다. 이 운동은 급속도로 퍼져 나갔으며, 1880년 6월 19일에는 범 교회적인 조직이 이루어졌다.

1879—1806

미국 이외의 선교부가 멕시코, 터키, 소사이어티 군도 및 사모아로 번져갔다.

1879

1월 6일. 미합중국 대법원은 1862년에 채택된 반 일부다처법 하에서 조지 레이놀즈의 이전의 선고 사항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이 법의 제정을 지지하여 법원은 1880년대에 들어서 몰

몬을 보다 강하고 규율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길을 닦은 셈이다.

1880

4월 6일. 교회 조직 제50주년 기념일이었으며, 이날에 시작된 연차 대회에서 특별 축하 행사가 시작되었다.

10월 10일. 대관장단이 재조직되었으며 존 테일러가 제3대 대관장으로 지지받았고, 조지 큐 캐넌과 조셉 에프 스미스가 보좌로 지지받았다.

1882

3월 14일. 에드먼즈 일부다처 반대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고, 며칠 후에 미합중국 대통령이 서명하였다. 이 법은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는 생활을 “불법적인 공동 생활”로 간주하고,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는 자는 모든 법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게 하였다. 이 법에 의한 심판 기소가 1884년부터 시작되었다.

8월 19일. 에드먼즈 법률의 권한으로 유타 위원회가 준주에 도착하였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5명의 위원회는 유타에서의 선거 절차를 감독하는 책임을 갖고 온 것이었다. 이 위원회는 일부다처 반대법을 강제로 시행하여, 일부다처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거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1884

5월 17일. 로간 신전이 헌납되었다.

1885

에드먼즈 법과 다른 심한 기소 사건이 유타와 아이다호에서 계속되었다. 많은 일부다처자들은 감옥에 감금 당하였고 어떤 사람은 망명길로 나섰고, 어떤

이는 멕시코와 캐나다로 갔다.

2월 1일. 존 테일러 대관장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마지막으로 공식상의 연설을 한 후에 숨었다.

1887

2월 17, 18일. 에드먼즈-터커 시행령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대통령의 서명없이 국법으로 제정되었다. 다른 엄격한 규율 가운데에서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이 법률에 따라 영구 이민 기금단이 해체되고 정부가 그 단체의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여성 투표권을 폐지하였고, 교회의 모든 재산을 실질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교회에게 특정한 사무실과 신전 지역을 임차하여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7월 25일. 존 테일러 대관장은 유타주 케이즈빌에서 “망명”중에 사망하였다. 십이사도가 1889년까지 교회의 관리 지도력을 맡아 행사하였다.

7월 30일. 에드먼즈-터커 시행령에 따라 교회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고, 영구 이민 기금 회사와 그 재산이 몰수되었다.

1888

5월 21일. 맨타이 신전이 헌납되었다.

1889

4월 6일. 상호부조회 제1회 대회가 지나 더 에이치 영 회장의 감리하에 솔트레이크시티의 어셈블리 홀에서 열렸다.

4월 7일. 대관장단이 재조직되어, 윌포드 우드럽이 대관장으로, 조지 큐 캐넌과 조셉 에프 스미스가 보좌로 지지받았다.



자신의 일지를 쓰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생활 속의 경험들에 대한 일지를 오늘부터 작성하십시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성도들에게 일기와 일지를 쓰라고 권고하였으며, 그 이후로 교회 지도자들은 이를 거듭 권고하였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교회에 가입한 후부터 매일 거의 한 시간 동안을 그날 있었던 일과 생각들을 기록하는 데 시간을 보내면서 일지를 계속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어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주변에서...일어난 일들을 매일 매일 일지에 기록한다면 그들 자신과 자녀에게까지도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소년 소녀는...조그만 노트를 마련하여...매일...조금씩 적어 가게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지에 기재되는 내용은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만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일, 소망, 그리고 낙담 등을 기록하여 그것들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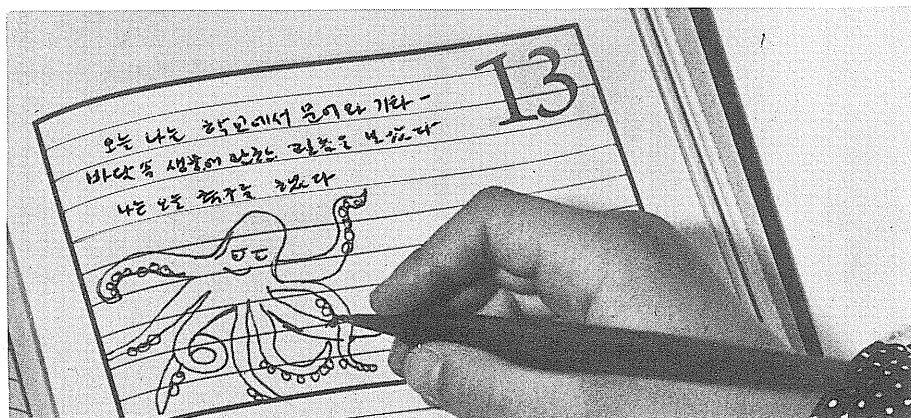
오늘 나는 축구공을 얻어서 무척 기쁘다.

오늘 우리는 학교에서 문어와 또 다른 바닷속 생물에 대한 필름스트립을 보았다.

이제 3주일이 지나면 아빠가 나에게 집사로 성임시켜 주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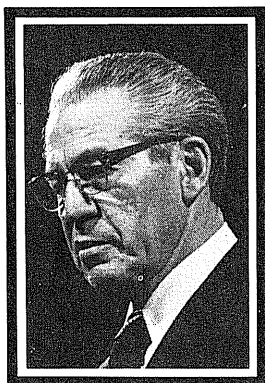
일지는 공책이나 바인더나 일반 일기장에 적을 수 있습니다. 일지는 단지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일지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말해 주는 개인적이고 묘사적인 기록입니다. 간증을 얻고 신앙이 깊어가는 경험이나 침례 또는 기타 복음 의식에 관하여 기록된 사건 등은 자신과 후손에게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엔 엘돈 태너
대관장단 제 1 보좌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지 2년 후인 1832년에 두 명의 젊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뉴욕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곳에 존 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들이 저녁에 이 지역의 학교에서 이야기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절름발이였으나, 가서 그 젊은 물론 선교사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지 보러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도량이 넓고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든 다리 때문에 여러 달 동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불구자였으나 그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그의 휠체어를 연단 바로 앞까지 밀어 주었습니다.

첫번째 선교사가 배도와 복음 회복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는 듣고만 있으면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선교사가 말을 하려고 일어섰을 때 존 태너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었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그는 아들에게 올라가서 두 선교사를 내려오라고 청하여 그들을 자기에게 소개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에게 그의 집에 가서 그날 밤을 묵고 가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초대를 받아들여 그의 집으로 가서 아침까지 종교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얼마 동안 토론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몸이 성하다면 나도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선교사들은 그에게 주께서 그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고치실 수 있겠지요”라고 그는 대답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자기가 장로라는 것과 주께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를 불러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하면서 병자 축복을 받고 싶으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병자 축복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날 그는 휠체어를 버렸으며 결코 그것을 다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침례받기 위하여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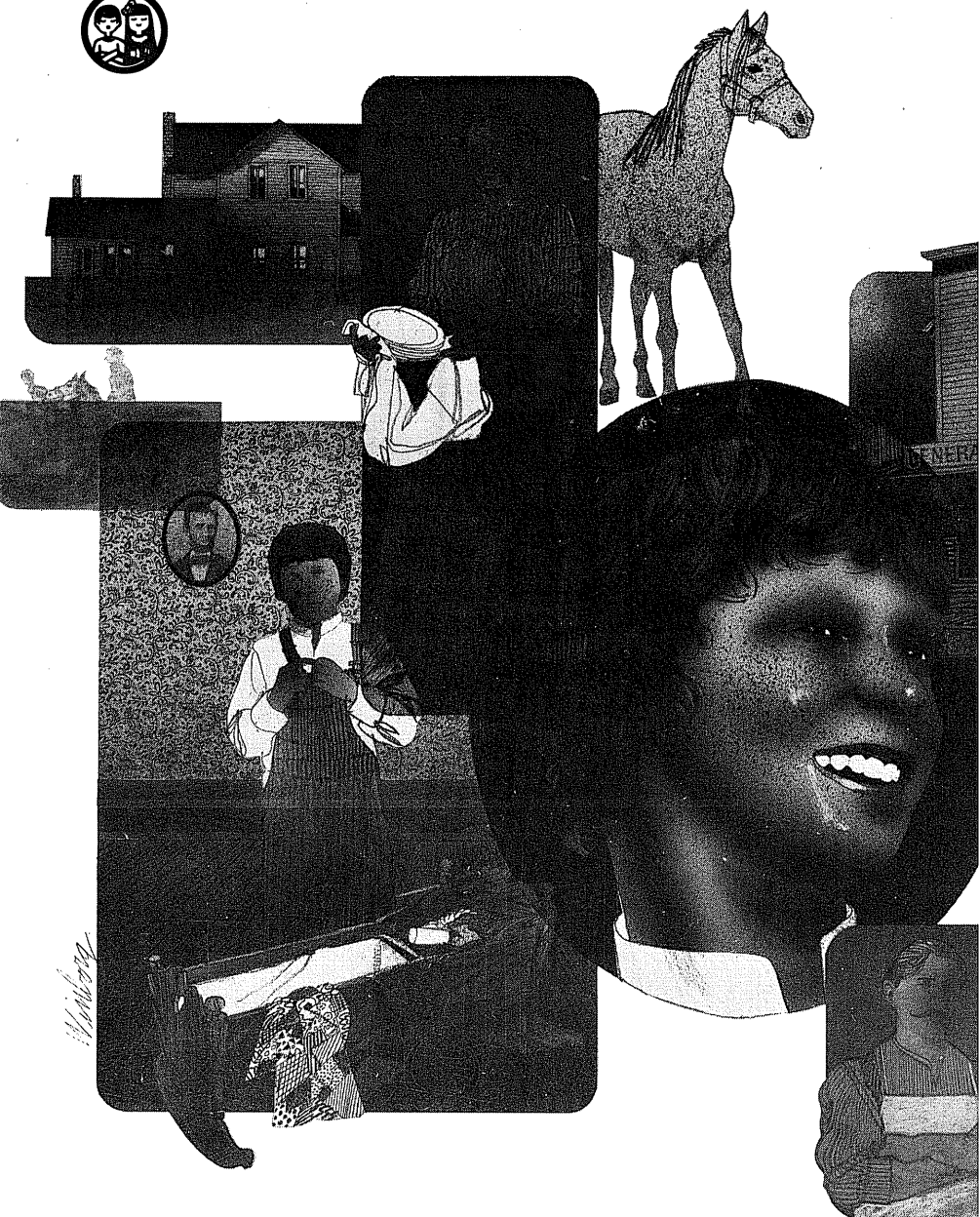
킬로미터나 되는 곳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난받고 조롱당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리를 들었을 때 그는 용기를 내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두 선교사들이 그 선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존 태너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가진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은 계속 신앙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네이던 태너도 신앙을 지켰고, 그 다음에 윌리엄 태너와 그의 아들인 네이던 윌리엄, 곧 나의 부친이 복음을 받아들여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모든 구도자들은 이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일생 동안에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



가장

샌디 엘 블레드소



제 이슨은 벽난로가에 누워 난로의 불빛으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이번즈씨의 목장에서 팔려고 내놓은 예쁜 새끼 조랑말이 눈앞에서 자꾸만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단 18불. 그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데! 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18불이란 남의 돈 500불보다 더 큰 액수였습니다. 제이슨의 아버지는 남북전쟁으로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10살된 제이슨이 가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무엇보다도 꼭 갖고 싶었던 것은 조랑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18불을 마련할 수 있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친구

들은 모두 말을 타고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소의 젖을 짜고, 닭에게 모이를 주고는 학교까지 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을 때는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 농장 일을 하느라고 항상 바빴습니다.

제이슨의 어머니는 레이번즈씨의 조랑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아들의 말을 매우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말이 끝나자 어머니는 슬픈 듯한 미소를 머금고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제이슨, 조랑말이 좋지마는 그것을 살 여유가 없구나, 이제 네 동생이 태어나면 우리는 살림이 더 어려워져요...”

“아기 생각을 잠시 잊었었어요. 귀여운 여자 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제이슨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열심히 일하면 아기 요람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그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네가 있으니 아무 걱정 없을 거야.”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되어 제이슨은 그의 침실인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잠들 때까지 조랑말에 대한 생각은 머리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는 길에 제이슨은 잡화상 가게 창문에 붙은 광고를 보았습니다.

제재소에서 오후와 저녁에 일할 소년

구함...급료는 시간당 10전.

한 시간에 10전이라면 꽤 많은 돈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방과 후에 일자리를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끝나는 종이 울리자마자 그는 제재소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를 얻으려고 길게 줄을 지어 모여 있는 소년들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왔습니다.

“몇 살이지?” 면접을 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열 살입니다. 그러나 3월이 되면 열한 살이 되어요. 그리고 저는 일을 아주 열심히 잘 해요.” 제이슨이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일자리를 얻기에는 너무 어리구나. 내년에 신청해보렴.”

제이슨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저의 아빠는 전쟁터에 나가셨어요. 제가 저의 집의 유일한 가장이예요. 열심히 일하겠어요.”

“네 아빠가 전쟁터에 계시다니 베게 일자리를 주어야겠구나.” 그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제이슨은 그가 얻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말해 드리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학교 공부와 집안 일을 하고 나서 자유로운 시간에 일하는 것이니 그곳에서 버는 돈은 네가 갖도록 해라.”

제이슨은 좋아서 펄쩍 뛰면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집안 일을 돌보는 것이 조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써 조랑말 위에 앉아 있는 자기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 볼 수 있었습

니다. 안장이 없어도 상관없어. 다른 아이들처럼 말을 탈 수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나를 더 이상 놀려 대지 않을 거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제이슨은 제재소에서의 일을 즐겨 하였습니다. 그러나 졸지 않고 공부하기가 어려워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여러 주가 지나면서 제이슨의 저금은 자꾸만 늘어갔습니다. 급료 지급날이 올 때마다 저금은 목표액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날 때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집안 일 때문에 그가 제재소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제이슨은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지급날에 그는 저축된 돈을 세어 보았습니다. 19불 10전이었습니다. 그는 귀여운 조랑말이 외양간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너무 조랑말만 생각하면서 가는 바람에 그만 마당에 매어 둔 마차에ハマ터면 부딪칠 뻔하였습니다. 그가 머리를 들었을 때 프랭크 의사 선생님이 있는 것을 알았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났구나! 그는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그는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요람! 어머니는 아직 아기의 요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이슨의 실수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일하여 번 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는 약간 자기가 이기적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여다 보았다. 할머니가 부엌에 계셨습니다.

“할머니, 여자예요 남자예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손가락을 입에 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쉬—엄마가 잠드셨다. 이리 와서 네 여자 동생 좀 보려므나.”

제이슨은 수줍은듯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태까지 갓 태어난 아기를 이렇게 가까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기는 담요에 쌓여서 빨래 바구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유, 할머니, 참 작네요.”

그는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이름을 지나라고 지었단다. 네가 아기였을 때하고 비슷하구나.”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이슨은 몸을 구부려 아기의 조그마한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만지자 아기의 손이 그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도 돌볼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지니에게 요람이 없는데 어떻게 조랑말을 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 아직 배고프지 않아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엄마에게 곧 돌아오

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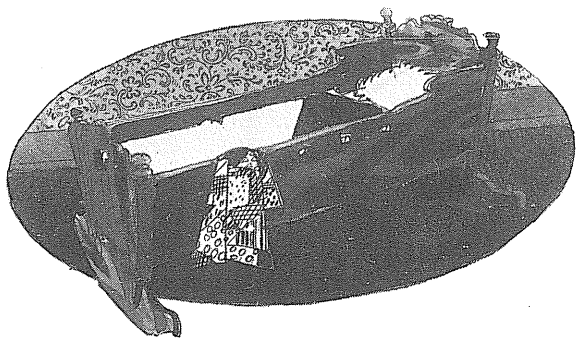
제이슨은 밖으로 뛰어 나와 잡화상까지 곧장 뛰어갔습니다. 상점에는 주인 라이트씨가 그의 취미인 목각 공예품을 만들고 있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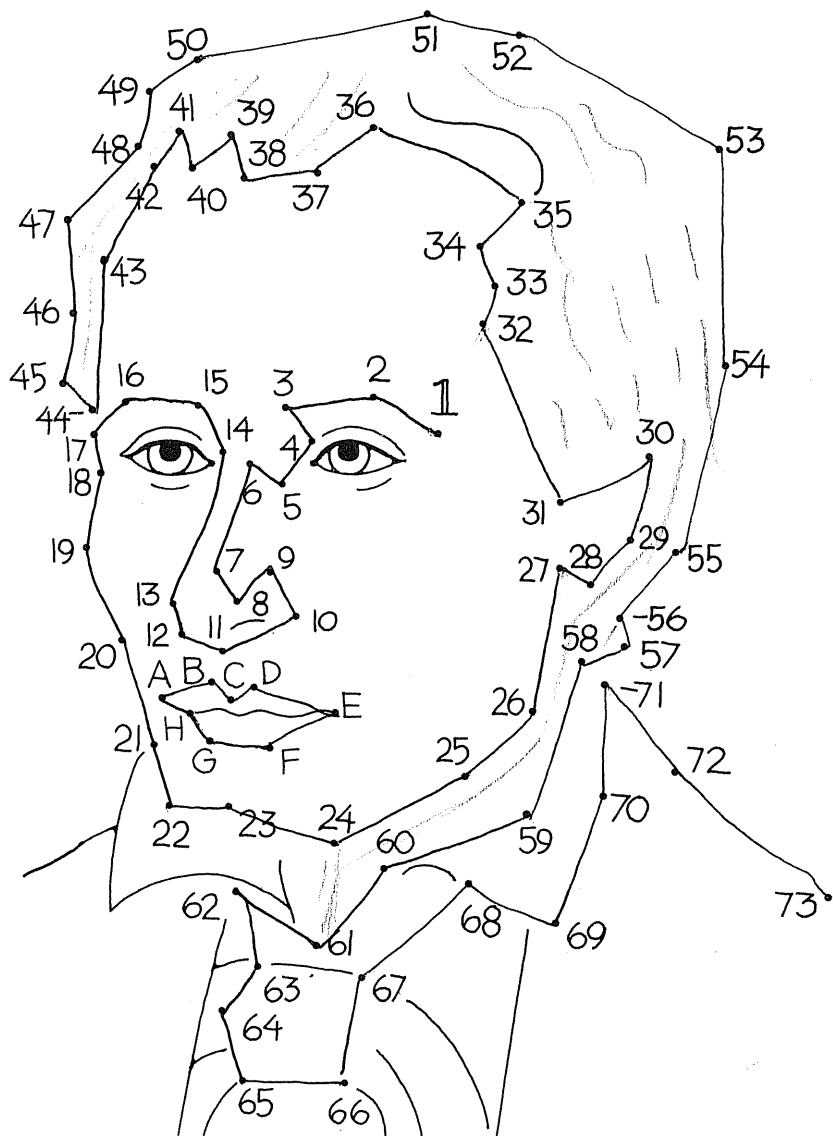
“라이트 아저씨! 엄마가 아기를 낳으셨어요. 아기 요람을 얼마에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흔들거릴 수 있는 요람으로요.”

“글쎄, 네가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까.” 상점 주인은 눈을 반짝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요람을 9월에 만들어 주지. 금요일까지 다 만들어 주마.”

“네, 좋아요.” 제이슨이 말하였습니다. 제이슨이 상점을 떠나려 할 때, 상자에 들어 있는 아기 옷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예쁜 옷은 얼마예요?”라고 제이슨이 물었습니다. “이 옷도 제 동생 지니에게 주고 싶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제이슨은 내내 기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는 새로 태어난 아기의 오빠가 가장 행복한 가장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

백

1806. 12. 27.
칠십 사년 전, 성탄절을 이틀 앞둔 어느 날 동부 버몬트주 채론읍에서 한 어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상한 일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기는 요셉과 루시 스미스 사이의 네번째 아이이며, 아들로서는 세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요셉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 네 살이 되었을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시현을 본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와 이야기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이분들은 환상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요셉의 일생은 극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는 매사에 있어서 하

늘로부터 온 선생님들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그의 좋은 친구인 올리버 카우드리는 함께 회복된 신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지상에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우림과 둠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자 요셉은 니파이의 거룩한 금판을 번역하였으니, 이것이 “지상에서 가장 완전한 책” 곧 몰몬경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에 포악한 무리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예언자 요셉도 38세 때에 사악하고 노한 폭도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교회를 조직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에게 감사하며, 그로 인하여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의 사랑과 친절의 모범은 그의 가르침을 알고 따르고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



빨강색 외투



아이어리스 신터가드

에 밀리는 외투 단추를 끼우면서 급히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 이르러 에밀리는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양은 넓은 초원을 분홍색 빛으로 밝게 물들여 주었습니다.

영국은 얼마나 먼 곳에 있는 걸까? 에밀리는 생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고향의 푸른 동산을 떠난 후 우리는 도대체 얼마큼이나 서쪽으로 여행한 것인가?

“에밀리, 떠나자.” 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에밀리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길게 늘어서 있는 손수레 행렬 사이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갈색의 마른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또 하루의 여행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에밀리는 다른 남자들처럼 하루종일 손수레를 끌지 않아도 되는 것이 기뻐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물론 도왔습니다. 어린이들과 노인들도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에는 뒤에서 밀어 주고, 언덕을 내려갈 때에는 마차 뒤를 잡아 주어 천천히 내려가게 하는 정도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에밀리가 그녀의 가족의 손수레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수레의 짐을 밧줄로 엮어 매고 계셨습니다.

“네 외투 색이 빨강색인 게 다행이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멀리 가서는 안된다. 그러다가는 이 황야에서 길을 잃게 돼.” 어머니가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조심하세요. 엄마,” 에밀리가 약속하였습니다.

손수레가 줄을 지어 떠나기 시작할 때 에밀리는 매일 아침 자기가 온 길을 다시 걸어 동쪽을 바라보던 이유를 부모님이 이해하실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아마 엄마 아빠는 내가 영국의 오두막집을 그리는 것만큼 그리워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에밀리는 그렇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황금색 짚으로 이어진 지붕이 있는 오두막집, 주위에 있는 라일락 나무에서 새벽마다 울새(로빈)가 지저귀는 돌체스터의 집을 생각하니 목이 메어졌습니다.

손수레의 긴 행렬은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니의 음성이 에밀리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외투를 수레 안에 넣어라. 날씨가 덥구나.”

에밀리는 다만 몇 시간 동안이라도 외투를 벗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외투를 벗어 수레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 외투를 입고 있을 때에는 영국이 그다지 멀리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입고 있으면 영국 집에서의 갖가지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부모와 함께 록키 산맥에 있는 다른 말일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떠나던 날 아침 할머니께서 외투를 주셨던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에밀리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나는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새로운 종교를 위해서 영국을 떠나야 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하겠구나. 내가 살아서는 너희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게야.”

그리고는 할머니는 에밀리의 손을 잡

으셨습니다. “아가, 네게 줄 선물이 있다. 이것은 내가 양털로 짜서 내가 물감을 들여 만든 외투야. 이 외투를 입을 때마다 이 할머니와 네 집을 기억하거라.”

길고 긴 나날들이 지루하게 지나갔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에밀리는 영국과 할머니로부터 멀어져만 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손수레 행렬의 모든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산속의 “시온”에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밤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둘러 앉아서 그들은 눈으로 뒤덮인 산들로 둘러싸인 계곡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에밀리는 아무도 자기처럼 외롭고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오레곤이나 캘리포니아로 가는 포장마차 대열이 가끔 손수레 행렬을 지나쳐 갔습니다. 어느 날 포장마차 대열 속에 낀 어떤 사람이 멈추어 에밀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딸이 네가 입고 있는 그 외투를 갖고 싶어하는데, 그 외투 아저씨에게 팔 수 있겠니?”

에밀리는 그녀의 가족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팔겠어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에밀리는 외투를 파는 것은 자기가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옛 고향집과의 마지막 남은 줄마저 끊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손수레의 여행길이 점점 험난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모닥불 주위에 둘러 있을 때 단장 에임즈씨는 특별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행길이 점점 험해지고 수레들이 많이 남아졌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새삼 말씀 드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각 가

족은 짐의 무게를 덜기 위하여 버려도 될 물건은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 많은 물건들이 마차 옆에 버려졌습니다. 에밀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 앉는 것 같았습니다. “네 빨강 외투도 버리는 것이 좋겠구나. 무거워서 말이다.”

“아버지.” 에밀리는 애원하였다. “제발 이 외투를 제가 갖게 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입든지 할게요. 수레에 넣지 않겠어요. 그러면 수레가 무거워지지 않을 거예요. 이 외투는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주신 것이잖아요.”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에밀리에게 외투를 갖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우면 제가 에밀리를 도와 주면 될 거예요.”엄마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에밀리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 외투가 그들 모두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지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들고 가거나 입고 가겠다면 버리지 않아도 좋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수레 안에 실어서는 안 된다. 에임즈 단장의 말을 따라야 해.”

어느 날 아침 에밀리가 아버지 곁에서 걸어갈 때 서쪽 지평선을 따라 흰 눈으로 쌓인 산봉우리를 보았습니다. 며칠 후 손수레 행렬은 산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낡은 손수레 바퀴는 돌 때마다 요란스럽게 삐걱거렸습니다. 모두가 지쳤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여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늦게 에밀리는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였습니다. 그날은 외투도 유난스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쉬지 않

고서는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산등성에 올라가서 잠시 쉬다가 가야지 하고 에밀리는 생각하였습니다.

쉬고 있는 동안 에밀리는 손수레 행렬과 산길을 돌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 보았다. 에밀리는 누워서 흘러가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아픈 등과 다리에게 땅은 참으로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에밀리는 일어났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잠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빨리 뛰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두워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있어야 해. 에밀리는 스스로 타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밀리는 기도하였습니다. “제발 오늘 밤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에 저의 부모님을 이곳으로 오게 해 주세요.”

칠혹 같은 밤은 느리게도 지나갔지만 곧 평화가 에밀리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에밀리는 빨강 외투를 입었습니다. 외투의 따스한 느낌은 밤의 한기로부터 보호해 주는 온기 이상의 따스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영국과 할머니와 옛집에 대한 추억은 것처럼 값지고 소중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덕에 혼자 있으면서 에밀리는 엄마 아빠와 함께 생활하게 될 계곡의 새로운 집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아 언젠가는 할머니도 오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에밀리는 생각하였습니다.

아침의 태양이 하늘을 환히 비추자 에밀리의 슬픔과 외로움은 가셔지는 듯 하였습니다. 에밀리는 늘 하는 버릇처럼 바위 위로 올라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마음은 동쪽에 대한 향수로 가득 차곤 하였습니다. 이제 에밀리는 서쪽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새로운 가정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몇몇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자 그들 중 한 사람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는 아버지의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밀리요. 빨강색 외투 때문에 찾았어요.”

에밀리는 언덕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에밀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길을 잃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빠가 저를 찾아 주셔서 기뻐요.”

“그 빨간 외투가 아니었다면 아마 못 찾았을 게다. 네가 이 외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입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구나. 네가 우리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빨강색을 알아 보았단다.” 아버지가 대답하였습니다.

“저도 고마와요.” 에밀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이 외투는 항상 할머니와 영국을 기억하게 해주는 특별한 것이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가정이란 단지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랑이란 외투 이상의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빨리 계곡에 도착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 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를 찾았는데, 너도 지난 밤에 네 자신을 찾은 모양이구나.” 아버지는 에밀리를 따스하게 안아 주셨습니다.

에밀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외투를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함께 서쪽을 바라보며 걸음을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



용감한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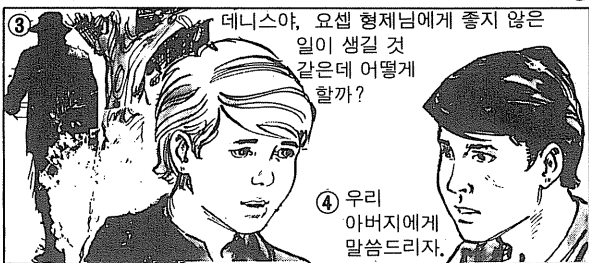
키이스 크리스티슨 글, 그림

① 이 이야기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목숨을 구한 데니스 해리스와 로버트 스코트라는 두 소년에 관한 이야기이다.

② 너희들 똑똑한 애들 같구나. 오늘 밤에 있을 특별한 모임에서 너희들에게 요셉 스미스에 관하여 몇 가지 보여 줄게 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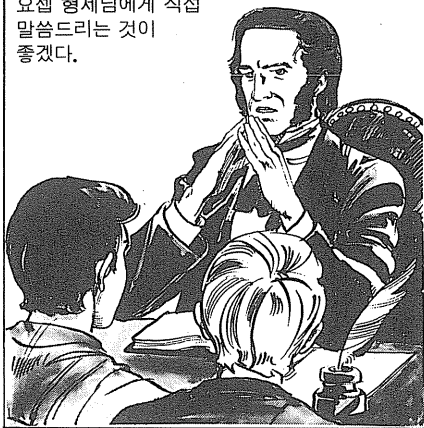
③ 데니스와 로버트는 기꺼이 그 모임에 참석하겠다고 했다.



④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드리자.

곧치아픈 일이 생기겠구나. ⑦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그 모임에 가서 보고 사실대로 나에게 알려 주겠니?

애들아, 아무래도 심상치 않겠다. 너희들이 ⑤ 요셉 형제님에게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⑧ 예언자는 두 소년을 반가이 집으로 맞아들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⑨ 그 모임의 분위기는 증오감으로 가득차 있었다.

요셉
스미스는 타락한
예언자이며
거짓말장이다 ⑩

데니스와 로버트는 이와 비슷한
모임에 여러 번 참석하고는
그때마다 요셉 스미스에게
보고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지막으로 참석할 모임이
열리게 되었다. ⑪

⑫ 애들아, 이번이 너희가 마지막으로
참석할 모임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아무 약속도
하지 말아라.

⑬ 무장한 보조들이 그들을 막고
는 몇 가지 질문을 했다.

⑭ 그러나 그들은 집안에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곳에는
단도와 칼과 총으로 무장한 성난 사람들이
요셉 스미스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⑮ 그 중 두 사람이 이 소년들에게 요셉은
예언자가 아니며 죽여야 한다고
설득시키려 했다.

⑯ 모두 다 예언자 요
셉 스미스를 죽이
는 일을 돕겠다고
맹세했으며 소년
들도 맹세하게 만
들려고 했다.

소년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떠나려고
했으나 붙들렸다.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⑰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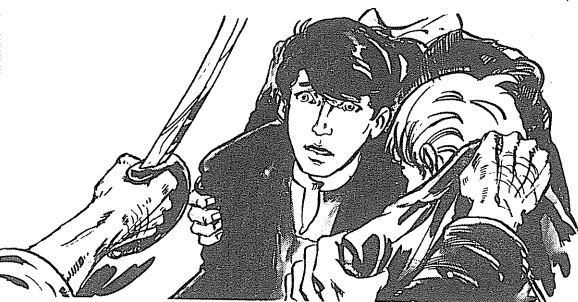
사람들이
로버트와
테니스를
지하실로
데리고
갔다.



19 다시 그들에게 맹세시키려
맹세시키려 했다.



21 군중 속에서 “멈춰라”라는
큰 소리가 나고 공중에서 칼이
뚧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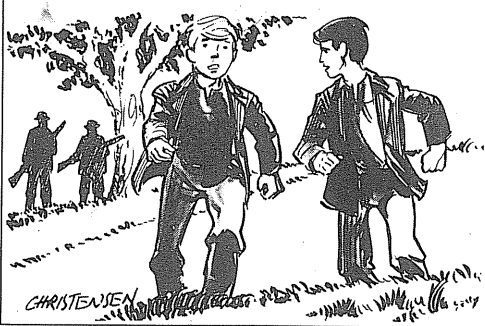
20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거절했다.
어떤 사람이 그들 머리 위로 칼을
휘둘렀다.



22 사람들은 테니스와 로버트가 다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예언자를 죽이려는 음모를
누설하면 죽이겠다고 말했다.



23 무장한 보초가 두 소년을 호위하고 얼마쯤 와서
놓아 주었다. 다시 그들이 들은 것을 말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협박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 형제에게 그 모임에 관하여 보고했으며,
이리하여 예언자는 원수들을 피할 수 있었다.





심심풀이 집 찾기



로버타 엘 페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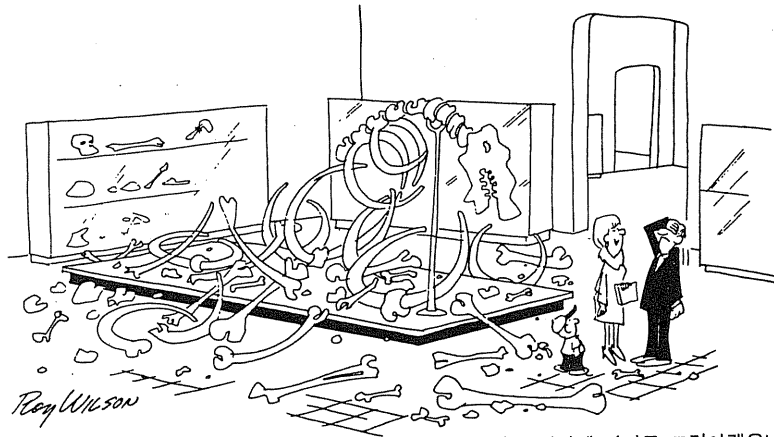
꼭 이글이 카누를 타고 그의 집까지 가려면
어떤 물결을 타고 노를 저어 가야 할까요?

짜짖기

체리 앤 닐슨

날 말의 뜻을 가장 알맞게 풀이한 설명을 찾아 괄호 안에 적으시오.

1. 침례() 2. 십일조()
 3. 순종() 4. 계명()
 5. 기도() 6. 용서()
 7. 선교사() 8. 감독()
 9. 성찬() 10. 금식()
- ㄱ.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
- ㄴ. 일정한 시간 동안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
- ㄷ. 우리가 번 것의 십분의 일을 교회에 바치는 것
- ㄹ. 와드의 아버지
- ㅁ.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의식
- ㅂ. 불친절한 행위를 이해해 주고 잊어버리는 것
- ㅅ.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
- ㅇ.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
- 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빵과 물
- ㅊ.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율법



제 아들이 선생님께 사과를 드려야겠습니다.

1890

9월 24일,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선언문을 공포하였는데, 그 선언문에서 지난해 동안 교회가 인정한 복수 결혼을 실시한 예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고, 그 동안에 복수 결혼에 대하여 가르친 것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며, 나라의 헌법에 따르겠다는 대관장의 뜻을 밝히면서 교회 회원들에게 법이 금하는 결혼을 일체 행하지 말도록 권고하였다.

10월 6일, “선언문”은 교회 대회에서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다.

1893

1월 4일, 미합중국의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은 1890년 11월 1일 이전에 복수 결혼을 행한 자들에게 특사령을 공포하였다. 유타 준주에서 선거 구역을 관리하던 유타 사령관이 철수되어야 했다.

4월 6일, 솔트레이크 신전이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에 의하여 헌납되었다.

10월 25일, 미합중국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교회의 사유 재산을 반환하는 결의안에 서명하였고, 이 결의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은 3년 후인 1896년 3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교회의 부동산이 교회에 반환되었다.

1894

8월 27일,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일부다처 반대법으로 인하여 민사상의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권리를 복원시킨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896

1월 4일,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유타를 연방의 주로서 받아들인다는

성명서에 서명하였다.

1898

9월 2일,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이 향년 91세를 일기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망하였다.

9월 13일, 로렌조 스노우가 교회 제 5대 대관장이 되었고, 그는 그의 보좌로서 조지 큐 캐넌과 조셉 에프 스미스를 선택하였다.

1899

5월 8일,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은 유타주 세인트 조지에서 대회를 갖기로 선포하였다. “이제 모든 말일성도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완전한 십일조를 바쳐야 할 때입니다.”

1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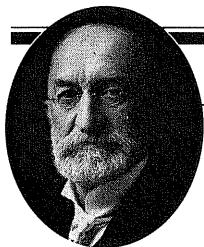
8월 12일,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가 일본을 헌납하고, 그곳에서 선교의 문을 열었다. 2년 후에는 십이사도의 프란시스 엠 라이만 장로가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러시아, 핀란드, 그리고 폴란드를 헌납하였다.

10월 10일,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이 솔트레이크시티 비하이브 하우스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10월 17일, 조셉 에프 스미스가 교회 제 6대 대관장으로 성별되었고 존 알 윈더와 앤톤 에이치 러드를 보좌로 택했다.

1904—1907

루드 스무드 사도를 유타 상원 의원으로 선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하여 미국 상원에서는 30개월 동안 조사가 되고 세상에 소문이 나돌았다. 조셉 에프



히버 제이 그랜트

“나 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음을 압니다. 나는 복음의 나무가 살아 있고 자라고 있으며, 그 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복음의 열매가 훌륭하다는 것을 압니다. 손을 뻗쳐 그 복음의 열매를 따 먹었더니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의 힘을 깨닫는 모든 말일성도에게 오는 영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습니 다. 예수는 그리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위대한 사업의 가장 으뜸이 되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가 이것을 관리하고 계시며 계속해서 지시하실 것입니다.”(간증, 50페이지) *

Heber J. Grant

스미스 대관장을 위시한 많은 총관리 역원들은 상원 의의회 앞에서 증거하였다.

1912

말일성도 청소년을 위한 주중 교육프로그램인 세미너리가 솔트레이크시티, 그레나이트 고등학교에서 시작되었다.

11월 8일. 대관장단은 협의 평의회를 창설하여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를 의장으로 임명하고, 이 평의회에 교회 보조 조직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을 막게 하는 임무를 목표로 주었다.

1914

1월. 상호부조회가 4개의 일반 주제를 가지고 학습하는 일정한 학습 과정을 최초로 시도하였다.

1916

6월 30일. 대관장단과 십이사도는 예수에 대하여 “아버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을 밝히는 교리적인 발표를 선포하였다.

1917

10월 2일. 이스트 사우스 템플 47번지에 교회 행정 건물이 완공되었다.

1918

10월 3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던 중, 조셉 에프스 미스 대관장은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시헌과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영의 세계에 가신 시헌을 받았다.

11월 19일.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그의 80회 생일을 6일 앞두고 사망

하였다. 유행성 감기 때문에 그를 위한 공개 영결식은 거행되지 않았다.

11월 23일 히버 제이 그랜트가 솔트레이크 신전에서의 십이사도 모임에서 교회 대관장으로 성별되었다. 그는 보좌로 앤톤 에이치 런던과 찰즈 더블류 펜로우즈를 택하였다.

1919

11월 27일,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 미합중국 본토 이외의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말일성도 신전인 하와이 라이에의 신전을 헌납하였다. 1915년 6월에 신전 부지가 헌납된 이후 곧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1920—21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오 맥케이 장로와 리버티 스테이크의 휴 제이 캐

년 스테이크 부장은 대관장단을 대신하여 전 세계를 55,896마일을 여행하면서 교회 선교부의 실정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태평양 군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및 아시아의 성도들을 방문하였고, 인도와 애급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머문 후에 유럽 선교 지역을 순회하였다.

1923

1월 21일, 서해안의 최초의 스테이크인 로스엔젤리스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8월 26일,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 앨버타 신전을 헌납하였다.

1925

12월 6일,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가 남미에서 정식으로 교회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 선교부를 세웠으며, 그 본부는



인디펜덴스 신전 부지. 1885년에 비 에이치 로버츠가 찍은 미주우리주, 인디펜덴스의 신전 부지의 최초의 사진. 예언자 요셉은 1833년 6월 25일에 신전과 시온성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계획은 모두 실현되지 못하였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두었다.

1926

최초의 신학 연구원이 아이다호주, 모스쿠오에서 시작되었다.

1927

10월 23일,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 애리조나주 메사에 있는 애리조나 신전을 헌납하였다.

1930

교회가 비 에이치 로버츠의 기념비적인 전6권의 교회사 요해를 출판하였다.

4월 6일, 솔트레이크시티, 태버내클에서 교회 조직 100주년 기념 대회를 열었다.

1934

12월 9일, 성도들이 나부로부터 나온 이래 미시시피강 동부에서는 최초로 세

워진 스테이크이며, 또한 물몬이즘을 탄생시킨 주에서 최초로 세워진 스테이크인 뉴욕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1936

4월, 교회는 '가난한 교회 회원들과 절박한 환경에 처하여 있는 실업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고자 공식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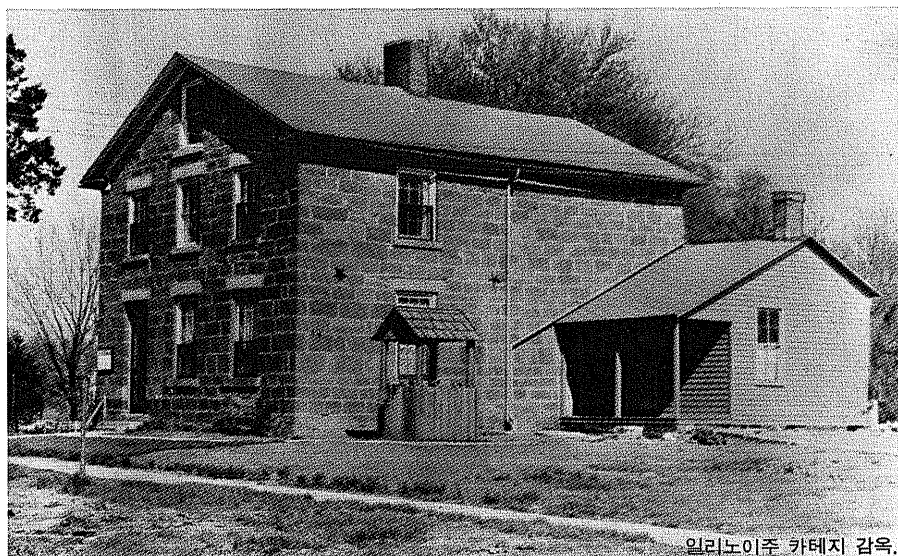
4월, 칠십인 제일 평의회가 스테이크 선교부를 관리하게 되었으며 그후 모든 스테이크에는 스테이크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1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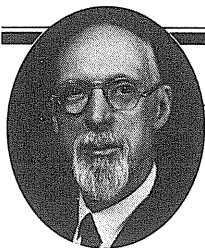
11월 6일, 전쟁이 발발하자 유럽으로부터의 선교사들이 모두 귀국하였고, 1940년에는 남아프리카와 태평양 군도로부터 선교사들이 떠났다.

1941

4월 6일, 연차 대회에서 대관장단은



일리노이주 카테지 감옥.



조지 앨버트 스미스

“나 는 세상의 구속주께서 선포하신 영광스러운 진리를 가르치는 데 온 심혈을 기울여 왔읍니다. 나는 그를 정면으로 뵈 적은 없으나 늘 그의 영이 나와 동반하고 있음을 느꼈으며, 조금도 의심없는 방법으로 그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나는 구속주께서 살아 계시며, 그의 교훈을 입증하려는 나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이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밝혀 주신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읍니다. 개인의 행복과 범세계적인 평화는 이 지상의 주민들이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교훈에 따르는 생활을 하지 않는 한 결코 영구히 존속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친절한 조언입니다. “이것이 길이니 이리로 걸으라. 그리하면 영생과 영원한 진보와 영원한 행복을 보상받으리라.” 나의 온몸은 그가 살아 계신다는 지식으로 떨리며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셨읍니다. 그는 사망과 무덤을 이기시고, 그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주셨읍니다.” (간증, 53페이지)

*

Josiah Albert Smith

십이사도 보조라는 새로운 직책을 발표하였고 처음으로 보조들이 부름받고 지 지받았다.

1943

3월 7일. 20세기에 인디언만을 위하여 조직된 최초의 선교부인 나바호—쥬니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1944

5월. 교회는 교회사에서 아담—온다이

—아만이라고 알려진 미주우리주의 지역을 구입하기로 발표하였다.

11월. 현재, 약 8만명의 교회 회원이 각자의 조국을 위하여 군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대하였다.

1945

5월 14일.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이 사망하였다.

5월 21일. *f w* 조지 앨버트 스미스가 교회의 새로운 대관장으로 지 지 받았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모든 관념 중 가장 높은 관념은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과 특히 그의 생애이며, 그는 가장 그리스도다운 참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진실로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성품이 결정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부에서 고귀하고 정화된 영으로 감동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거룩하신 이에 대하여 연구할 수도 없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인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능력있는 힘이 작용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기록에서 발췌된 귀한 경험들, 클레어 미들미스 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6년] 24페이지) *

David O. McKay

1946

1월. 교회는 유럽의 성도들에게 식량과 의복을 보내주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그 후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다.

2월.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가 유럽의 성도들의 물질적 및 영적인 필요사항을 위하여 일하였다. 그는 전쟁으로 인하여 소외된 성도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교회 복지 구호품을 나누어 주었고, 교회의 지부를 세우기 시작하게 하였다.

1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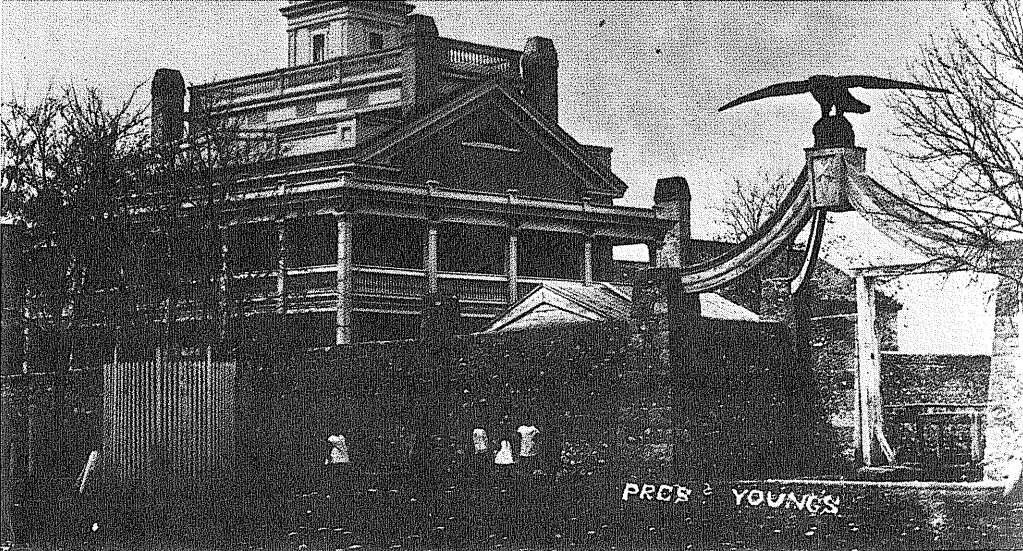
1월. 대관장단은 일곱 개의 선교부를 통괄하는 행정 단위인 태평양 선교부의 선교부장으로 매튜 카울리 장로를 임명하였다.

7월 24일. 교회 회원들은 브리감 영의 솔트레이크 계곡 도착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12월. 금식일이 유럽에 있는 궁핍한 자들을 위한 자선 구호의 날로 정해졌다. 이날 200,000불이 모금되었고, 이 돈은 교회와 관계가 없는 단체에 의하여 각 종파의 유럽인들에게 나누어졌다. 교회는 또한 유럽의 성도들에게도 복지 원조품을 보냈다. 1947년 말 현재로 교회는 유럽으로 식량을 화물차 90여대에 실어 보냈다.

1949

4월 5일. 복지 프로그램이 교회의 영구 프로그램으로 발표되었다.



비하이트 하우스. 브리감 영이 1854년부터 1877년까지 살던 집.

7월 10일. 중국 선교부가 홍콩에 본부를 두고 조직되었다.

1951

4월 4일.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이 사망하였다.

4월 9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가 교회 제 9대 대관장으로 지지받았고, 스티븐 엘 리차즈와 제이 루벤 클라크 이세가 보좌로 지지받았다.

7월 20일.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선교사로 부름받는 젊은이들의 수가 줄어 들게 되자, 대관장단은 칠십인에게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도우라고 지시하였다. 따라서 기혼 회원들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다.

1952

교회 선교사들을 위한 책자 복음 전파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출판되었다.

6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6주간의 의미깊은 유럽 여행에서 유럽의 선교부들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스위스, 웨일즈, 스코틀랜드, 불란서 등등의 지부들을 방문하였다. 이 여행에서 그는 스위스의 베른을 최초의 유럽 신전 부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하였다.

11월 25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가 새로이 선출된 미합중국 대통령인 드와이트 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미 농림부 장관으로 선택되었다. 벤슨 장로는 이 직책에서 8년간 봉사하였다.

1954

1월 2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나 런던, 남아프리카, 남아 및 중미를 여행하였다. 그는 2월 중순에 돌아왔으며, 그때까지 교회의 모든 선교부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셈이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음** 처럼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니라’ (욥 19 : 25) 나는 그가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가 행하신 대속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사망으로부터 구속되었음을 압니다.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여 나아오게 될 것이며,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그 때 승영을 얻을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각기 자기 행위대로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들 자신의 죄로부터 구속받게 됨을 압니다. 이는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 고나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겪은 것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느니라.’”(교성 19 : 16, 17) 주님의 피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죄를 씻어 주지는 않습니다. 나는 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아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속함을 입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부인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성한 뜻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압니다. 그는 이같은 놀라운 진리 때문에 우리를 사망과 무덤으로부터 구속하실 수 있었으며,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우리의 개인적인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권능을 지닌 사람으로부터 안수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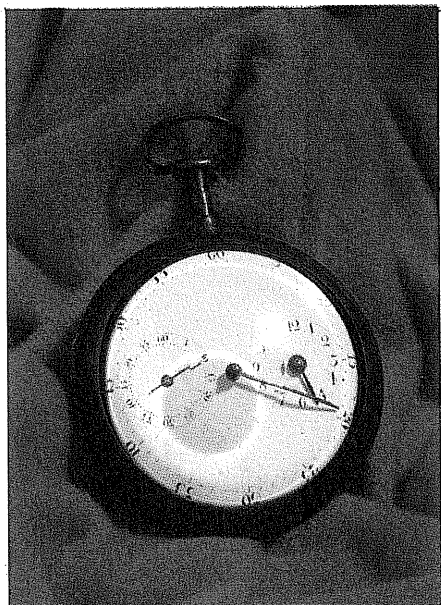
Joseph Fielding Smith

1955

1월—2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남태평양 선교부를 도는 역사적인 여행을 감행하였는데, 그 여정의 길이는 72,420킬로미터가 넘는 긴 여행으로

서, 여행 중에 그는 뉴질랜드 신전 부지를 정하였고, 하와이에 교회 대학을 지을 계획을 의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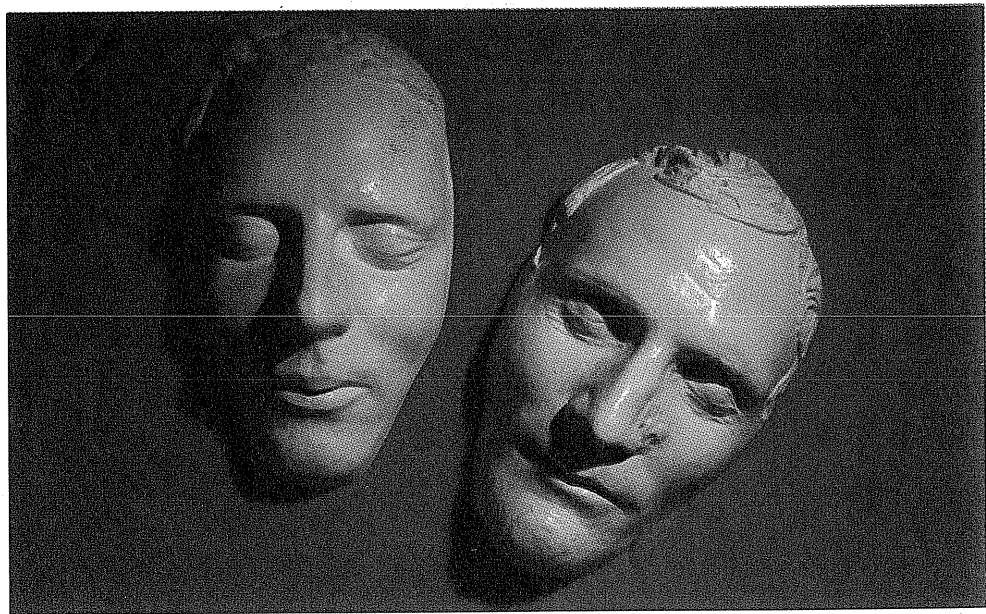
8월—9월. 태버네클 합창단이 유럽으로 대 연주 여행을 떠났다.



하이람 스미스가 소지하였던 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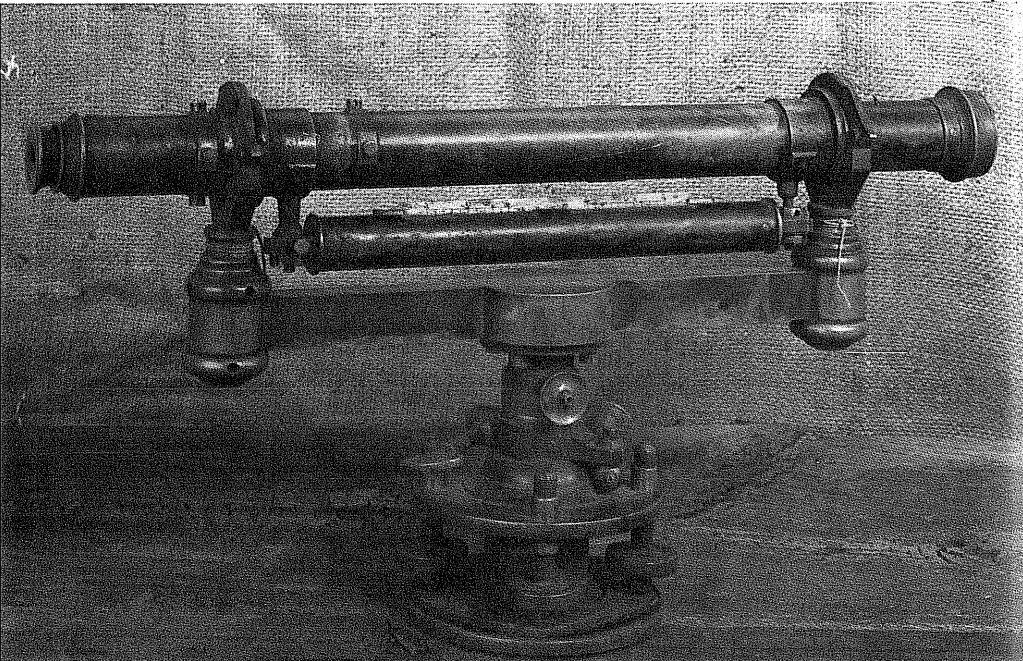
인디펜덴스 신전 부지. 1885년에 비 에이치 로버츠가 찍은
미주우리주, 인디펜덴스의 신전 부지의 최초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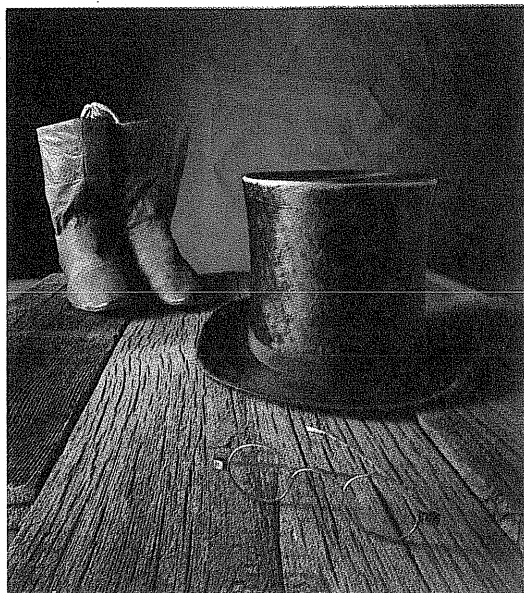
요셉과 하이람의 사면(테드 마스크) 그들이 사망한 직후 나무의 조지 캐넌이 만들었다. 이것은 사
진이 나오기 전 시대에 유명한 사람의 형상을 보존시키기 위하여 흔히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
로 만든 주조물이다.

영국, 마이케드 근처 피래턴에 있는 천마세트 레인 시몬으로의 집합의 일부로서 수많은 성도들이 해외에서의 선교 사업의 결과로 유럽과 그 밖의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모여 들었다. 백스터 그림, 1978년.





절경의 (트란스) 솔트레이크 계곡을 관측하는 데 사용되었다. (1847—55)



브리감 영 대관장이 사용하였던 모자, 구두, 안경(185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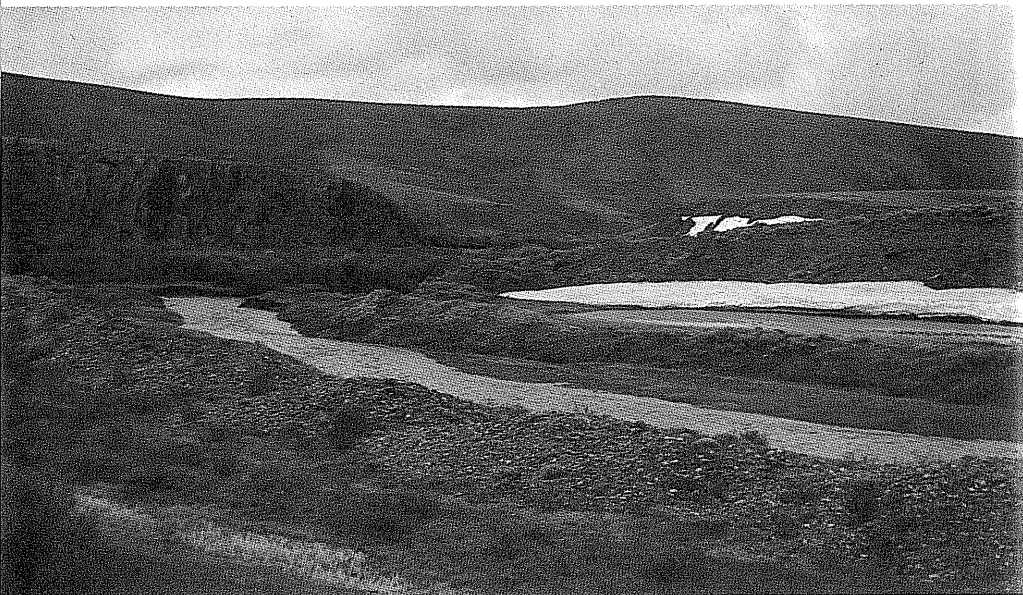
리베카 윈터즈 무덤. 이 새겨진 쇠 마차바퀴는 여행 중에 죽은 개척 여인 리리 리베카 윈터즈의 무덤을 표시해 주고 있다. 브르스 엘름 사진, 19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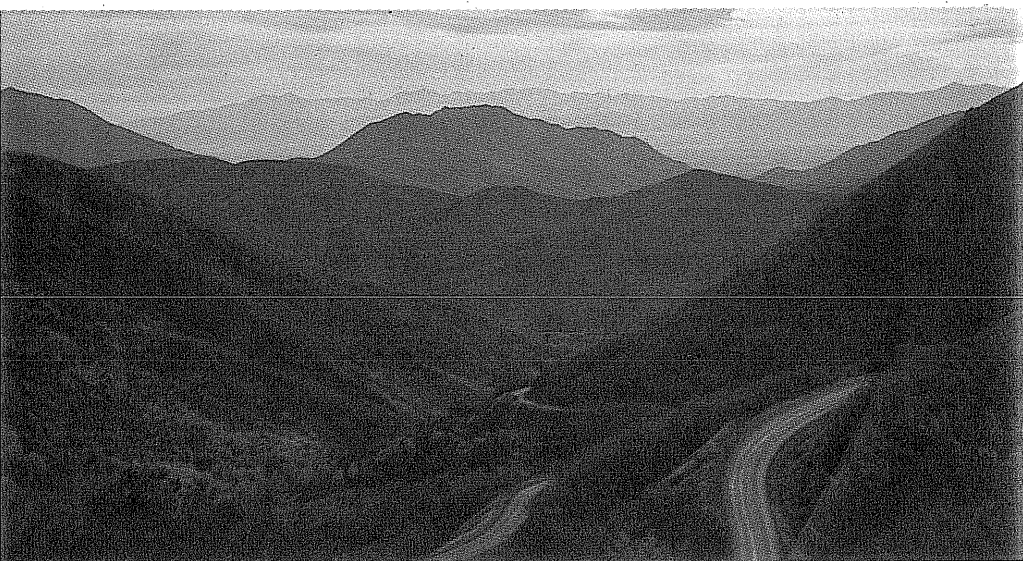
네브래스카주, 굴뚝 바위. 미국 서부로 이주하려 지나는 수많은 개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정표였다. 이 바위는 많은 개척자들의 일기에 언급되어 있다. 브르스 엘름 사진, 19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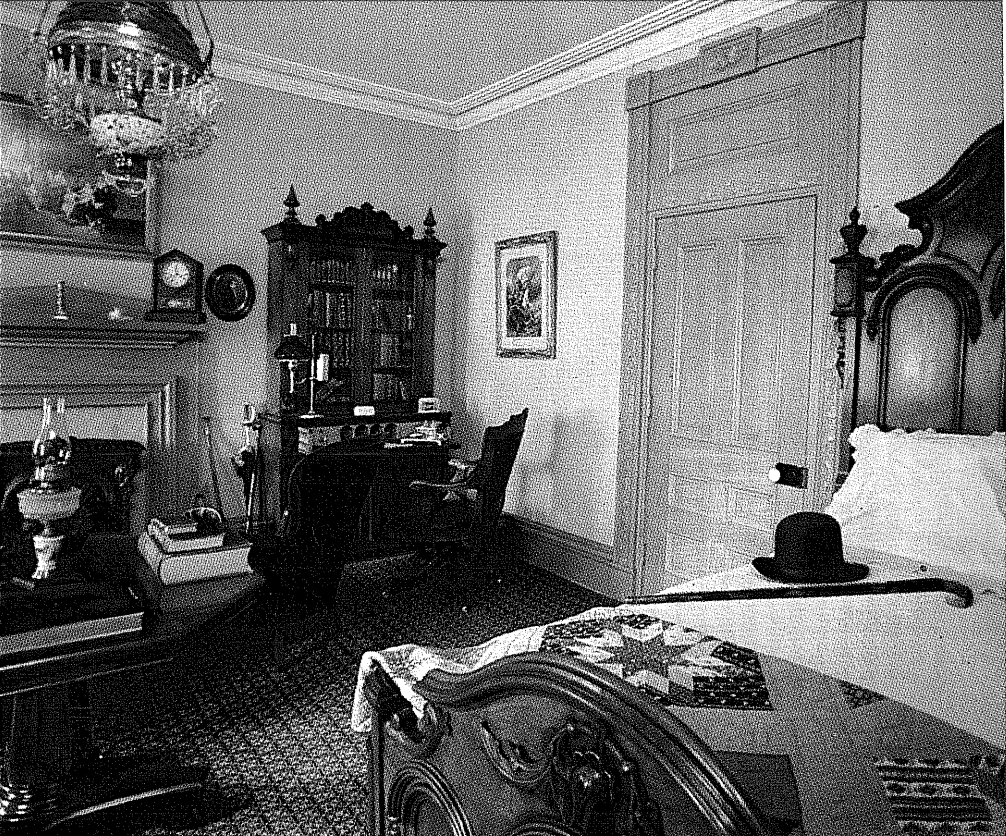
오늘날의 마차 바퀴 자국. 수없이 많은 개척자들의 마차 바퀴가 같은 길을 다녔으므로 깊은 바퀴 자국을 남겨 놓았는데, 와이오밍주 헨시 근처에서 발견된 이것처럼 아직까지 보이는 것도 있다. 브르스 엘름 사진, 19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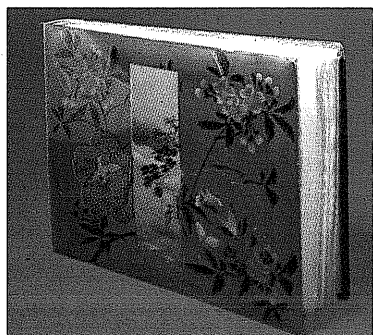
이민 계곡. 멀리 보이는 대 솔트레이크 계곡은 개척단이 처음으로 본 계곡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여행은 다소 언덕을 내려가서 계곡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아마 현대의 고속 도로보다 직선적인 길일 것이다. 브르스 엘름 사진, 1978년.



윌리 손수레 그룹이 갔었던 후미진 곳. 윌리 손수레 일단은 10월의 폭설에 이 후미진 곳에 갇혔다. 솔트레이크로부터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거나 얼어 죽었다. 브르스 엘름 사진, 1979년.



비하이프 하우스에 있는 브리감 영의 침실. 방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브리감 영의 소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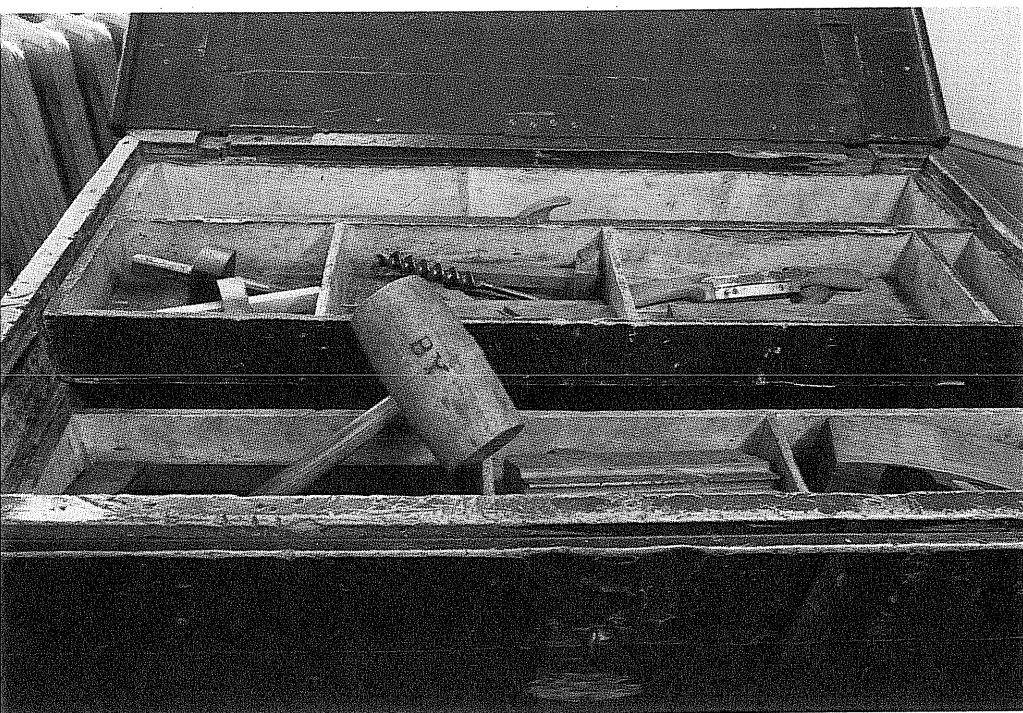
물문경 표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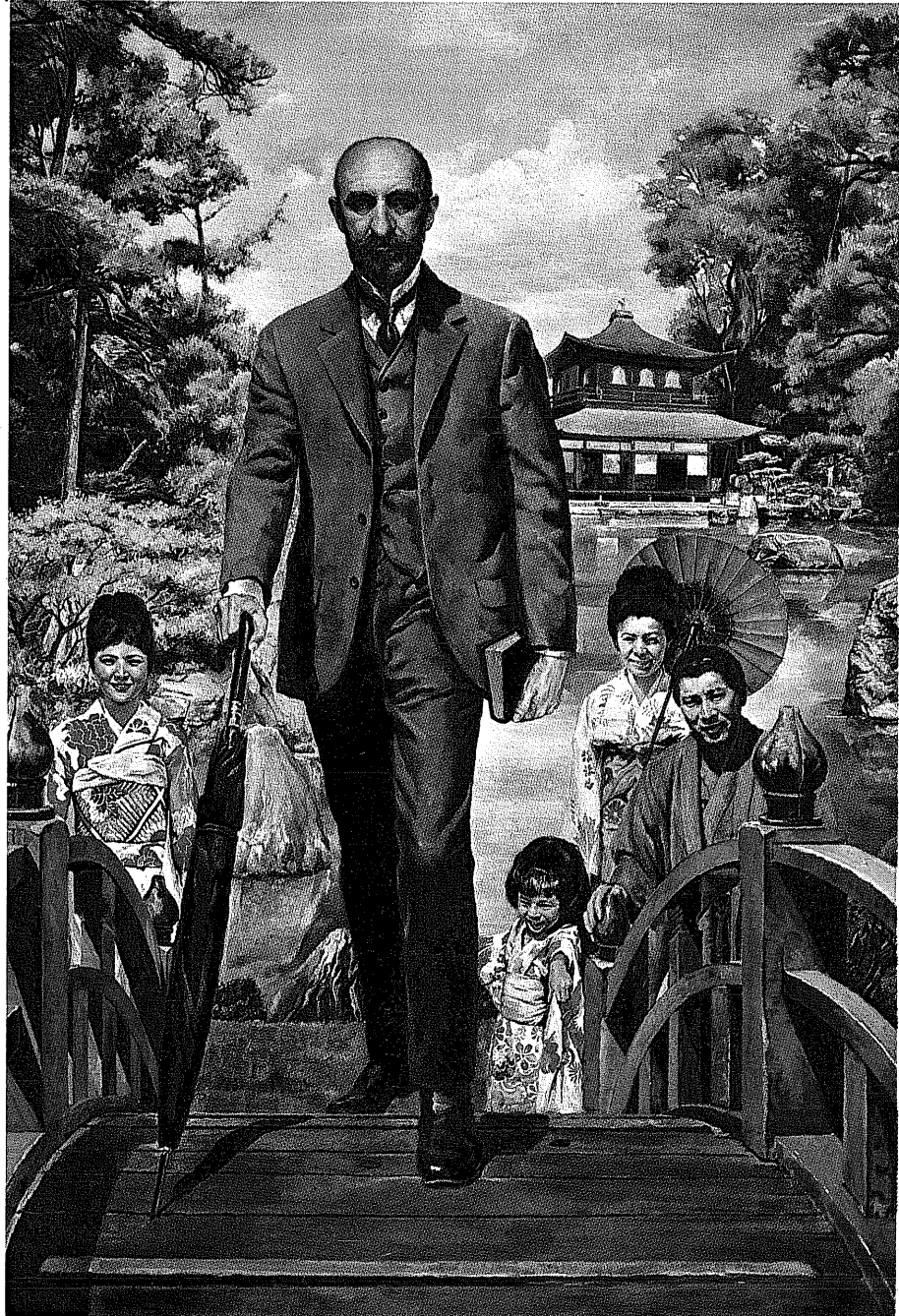
망원경. 히버 시 킴볼 소유 (1846—55)



신전 의자. 나부 신전에서 사용되었던 의자이다. 이 의자는 아마 십이사도 정원회가 앉도록 만들어진 3줄의 의자 세트 중 하나일 것이다. 성도들이 나부를 떠난 후, 이 지역의 비물론들이 신전을 약탈하였다. 이 의자는 여러 해 후에 오랫동안 이 의자를 소유해 오고 있던 어떤 가족이 교회에 반환했다.



브리감 영의 연장 상자



히버 제이 그랜트. 십이사도 정원희의 그랜트 장로는 1901년에 일본에 선교의 문을 열었다. 데일 킬본 그림.

9월 11일, 베른 근교에 스위스 신전이 헌납되었다.

1956

3월 11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리스 신전을 헌납하였다.

10월 3일, 솔트레이크시티의 상호부조회 건물이 헌납되었다.

12월, 신권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여기에는 계간 스테이크 신권회, 계간 역원회 및 스테이크 대회와 연관된 여러 가지 역원회가 포함된다.

1958

4월 20일, 뉴질랜드 신전이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에 의하여 헌납되었다.

9월 7일, 런던 신전이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에 의하여 헌납되었다.

1960

1월, 교회는 유럽에 대규모 건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 작업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1961년초, 교회가 현존하고 있는 세계 각처에서 북미 이외에서의 행정 건물이 세워졌으며, 각 지역에서 보통 선교사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솔트레이크 시가. 1860년경의 시가.

3월 27일, 유럽 지부에서의 최초의 스테이크(영국)와 오스트레일리아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3월,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졌다.

1961

3월 12일, 최초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의 스테이크가 네덜란드에 조직되었다.

6월—7월, 교회의 모든 선교부에서 사용될 6개 공과의 새로운 교수 계획이 “모든 회원은 선교사” 프로그램으로써 최초의 선교부장 세미나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되었다. 전세계 선교부는 9개 지역으로 나뉘어졌으며, 총관리 역원은 각 지역을 관리하도록 배치되었다.

9월 30일, 연차 대회 신권회에서 해롤드 비리 장로가 처음으로 협의 프로그램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11월, 외국으로 나가도록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을 위한 언어 훈련원이 브리감영 대학교에 설치되었다. 1963년에 이 훈련원의 명칭이 언어 훈련 선교부로 바뀌었다.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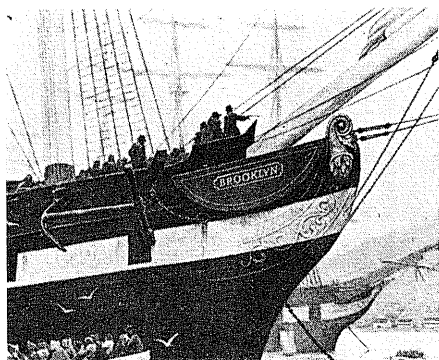
12월 3일, 최초로 스페인어를 말하는 지역의 스테이크가 멕시코 시티에 조직되었다.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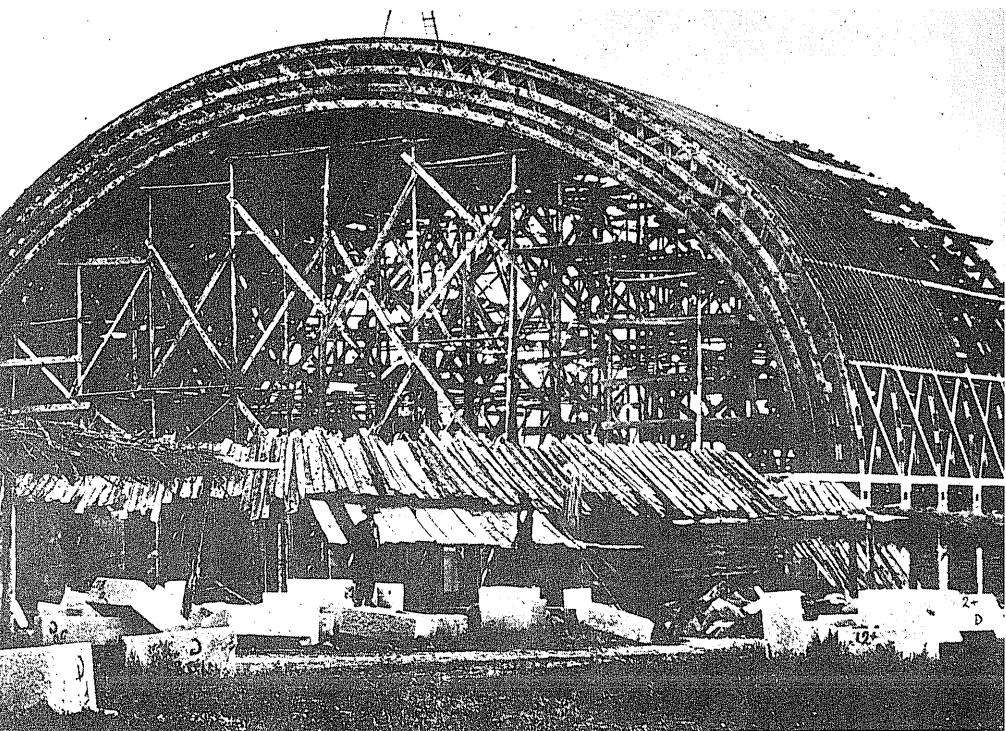
12월, 리틀 커튼우드 계곡에 교회 기록 동굴 보관소가 완공되었다. 이 동굴 보관소는 1966년 6월 22일에 헌납되었다.

1964

1월, 새로운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



브루클린호. 나부에서 성도들의 일진이 서부 여행을 떠났던 바로 그날인 1846년 2월 4일에 뉴 잉글랜드주와 대서양 연안의 주들로부터 235명의 성도들이 뉴욕에서 캘리포니아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1846년 7월 29일에 현재의 샌프란 시스코에 도착하였다. 아놀드 프리버그 그림, 1951년.



1865년에 건설중인 솔트레이크 태버네클 시. 알 새비지 사진.



해롤드 비 리

“이 마지막 며칠 동안 나는 나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며 더욱 확실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는 대회 동안 구세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는 확신을 말하지 않고서는 이 대회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그 분의 교회입니다. 그 분께서는 그의 교회의 본부인 이곳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그 분은 부재하시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분은 우리들이 그 분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그 분이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실제로 살아 계심을 압니다. 나는 오직 그가 나를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나를 지지해 주신 이 높은 지위에 서기에 합당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들이 참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나는 특별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일의 진실성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이 이름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늘 아래의 유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성도들에게 주는 축복, 대회 보고 I, 215페이지)

※

Harold B. Lee

이 1963년 하반기 중에 있었던 스테이크 대회에서 소개된 이후의 전 교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11월 17일, 오클랜드 신전이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에 의하여 헌납되었다.

1965

1월, 가정의 밤 프로그램이 실시되어 교회가 공식적인 가정의 밤 교재를 출판하였다. 1970년 10월 1일 월요일 저녁을 온 교회의 가정의 밤의 날로 정하였다.

2월, 이태리 정부가 말일성도 선교사

들에게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1862년 이래로 그곳에서는 선교 사업이 행하여지지 못하였다.

3월, 3대 가족 계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1966

5월 1일, 남미 최초의 스테이크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조직되었다.

10월, 교회 지부가 폴랜드의 페브니카-캐스처브에 조직되었다.

1967

3월, 교회 잡지가 9개 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기 시작했다. 현재 성도의 벗이라고 불리우는 이 잡지는 17개국어로 번역되어 읽혀지고 있다.

9월 29일. 십이사도 지역 대표라는 새로운 관리 정책이 발표되었고, 69명의 지역 대표가 부름을 받아, 훈련을 받았다.

11월. 요셉 스미스가 값진 진주를 번역하고 있는 동안에 소유하고 있던 애급 파피루스의 일부를 뉴욕 매트로폴리탄 예술 박물관이 교회에 반환하였다.

1968

12월. 교회가 폴란드와 한국의 계보 기록을 마이크로 필름화하기 시작하였다.

1969

6월. 최초의 선교사들이 스페인으로 갔으며, 1년이 지난 1970년 7월 1일, 스페인에 선교부가 조직되었다.

8월 3—8일. 기록에 관한 세계 대회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렸다.

11월. 1969년 11월 1일에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동남 아시아 선교부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었다. 1970년 1월에 최초의 선교사가 인도네시아로 파견되었다.

1970

1월 18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사망하였다.

1월 23일. 조셉 필딩 스미스가 새로운 교회 대관장이 되었고, 해롤드 비리 장로와 앤 엘돈 태너 장로가 그의 보좌로 선택되었다.

3월 15일. 아시아의 최초의 스테이크가 일본 동경에 조직되었다.

3월 22일. 아프리카의 최초의 스테이크가 남아프리카 트란스발에 조직되었다.

1971

1월. 새로운 교사 자질 향상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7월. 최초로 두 명의 선교가 파견됨으로써 의료 선교 프로그램(후에 보건 선교사 프로그램이 되었다)이 시작되었다.

8월 27—29일. 교회의 최초의 지역 대회가 영국 성도들을 위하여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렸다.

1972

1월. 선임 아론 신권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수련 장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1월 18일.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에 의하여 옥든 신전이 헌납되었다.

2월 9일. 프로보 신전이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에 의하여 헌납되었다.

7월 2일.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이 사망하였다.

11월 7일. 해롤드 비리가 교회의 새로운 대관장이 되었고 앤 엘돈 태너와 매리온 지 롬니가 보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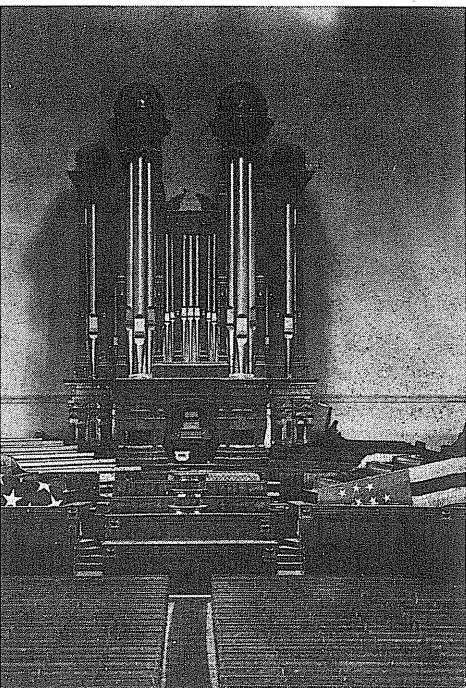
11월. 새로운 28층의 교회 본부 건물이 완공되었다.

1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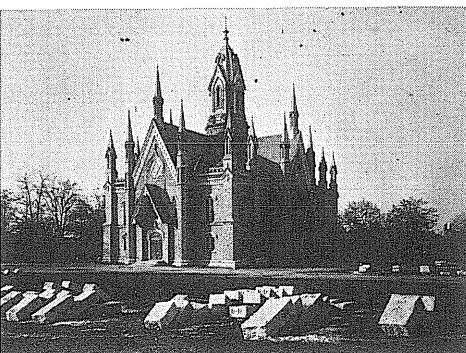
새로운 선교사용 공과 과정이 모든 선교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완성되었다. 이것은 1961년 이래 처음으로 있는 선교사 공과의 변경이었다.

2월. 최초의 농업 선교사가 미국을 떠나 파테말라—엘살바도르 선교부로 파견되었다.

3월 8일. 아시아 대륙에서는 최초이며 동양에서는 세번째인 스테이크가 한국,



솔트레이크 태버나클 외부. 완공된 직후의 모습 사진에 있는 국기는 축하를 표시하는 것이다.



어썬블리 홀. 템플 스퀘어에 있는 가장 훌륭한 건물의 하나인 이 건물은 1877년에 건축이 시작되어 1880년에 완공되었고, 1882년에 헌납되었다. 전면에 보이는 돌들은 신전의 일부가 되었다. 돌에 쓰여진 번호는 채석장에서 쓰여진 것으로, 건물에서의 위치를 지적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조직되었다.

12월 26일, 스펜서 더블류 킴볼이 새로운 교회 대관장으로 성별되었고, 앤 엘돈 태너 장로와 매리온 지 롬니 장로가 보좌로 성별되었다.

1974

8월 28일, 태국 방콕에 최초의 말일성도 집회소가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에 의하여 헌납되었다.

1975

5월 3일, 대관장단은 지역 관리 프로그램의 창시와 십이사도 보조 6명이 교회 활동을 관리하고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해 말에 지역의 수는 8개로 늘어났다.

6월 27일, 보조 조직의 연차 대회 폐지가 선언되었다. 이 대회는 각 지역 산하의 모든 스테이크의 신권 지도자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을 위하여 열리는 연례 지역 모임으로 대체되었다.

10월 3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 조직을 발표하였고, 연차 대회에서 이 정원회에 3명의 회원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지지가 있었다.

1976

4월 3일, 연차 대회에 모인 회원들은 요셉 스미스의 해의 왕국에 관한 시헌과 조셉 에프 스미스의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헌을 값진 진주에 첨가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5월 1일, 한국 서울 스테이크는 서울 근교에 9.5킬로미터 부지에 아시아 최초의 복지 농장을 만들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이 강한 자들과 고대 예언자들의 간증에 나는 나 자신의 간증을 더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과 그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 가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는 나의 친구요, 구세주요, 주님이요, 하나님입니다.

“진심으로 나는 성도들이 계명을 지키고 그의 영을 지녀, 해의 영광에서 그와 함께 영생을 얻도록 기도합니다.”(“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 성도의 빛, 1979년 4월, 112페이지)

말일의 예언자들은 권능을 지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세주를 알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에는 심금을 울려 주는 요셉 스미스의 다음 말씀처럼 확신과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회복된 복음이 요약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우편에 있는 아들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또 보니, 거룩한 천사들이 있었고, 그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있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며 또 영원토록 경배하더라.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76 : 20-24)

*

10월 1일. 십이사도 보조 전원이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을 받고 그 정원회의 회장이 새로 조직되어, 에스 딜위스 영 대신에 프랭클린 더 리 차즈 장로가 회장으로 되었다.

1977

1월 1일. 대관장단은 연차 대회의 새로운 일정을 발표하였으니, 대회는 4월과 10월 첫번째 일요일과 그 전 토요일에 갖기로 되었다.

1월 14일, 멕시코에서 교회 실무를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최초의 관리 감독단 지역 관리자가 멕시코 시티에 소개되었다.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지역인 8개 지역에 대한 관리 감독단 지역 관리자는 6월 4일에 발표되었다.

2월 5일, 대관장단은 십이사도 평의회에 학습 교과 과정, 활동 프로그램과 소년단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중무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관리 감독단에게는 실무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맡겨, 조직상의 한계를 발표하였다.

2월 21일—3월 11일,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 대회로 인한 1달간의 여행 중에 멕시코, 파테말라, 칠레 및 볼리비아 등지의 주지사들을 예방하고, 미국의 백악관을 방문하여 지미 카터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5월 14일, 청남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되었고, 새로운 청남 본부 회장단이 부름을 받아 신권 집행 위원회의 청소년부의 지시를 받아 봉사하게 되었다.

5월 22일, 문화 예술과 체육 활동을 조화시키는 책임을 지고 있는 새로운 교회 활동 위원회 조직이 발표되었다. 이와 비슷한 그룹이 각 지역 단위에서 조직되었다.

7월 1일, 교회 회원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이라고 불리워지던 교회의 지역적 분류가 지구(zone)라는 명칭으로 개칭되었으며, 11개의 지구는 다시 지역으로 세분되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들이 지구 고문 및 지역 관리자로서 임명되었다.

1977

10월 15일, 대관장단은 사모아에 신전을 지을 계획을 발표하였다.



독일 성도에게 보내는 네덜란드산 감자.

10월 26일, 십이사도 평의회 의 리그랜 드 리차즈 장로는 예루살렘의 2헥타아르 정도의 감람산 기슭이 올슨 하이드 기념 동산으로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978

2월 3일, 대관장단은 사우스웨스트 슬레이크군·남 조단에 새로운 신전을 세울 계획을 발표하였다.

3월 31일, 대관장단은 1979년부터 각 스테이크에서는 해마다 스테이크 대회를 네 차례 갖지 않고 두 차례 갖기로 발표하였다. 이는 회원들의 시간, 여행 및 금전상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이다.

5월 27일,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신전 기공식을 가졌다.

6월 9일, 대관장단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이 모든 인종의 남자가 신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시험을 받았음을 말해 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6월 13일, 하와이 신전이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에 의하여 재헌납되었다.

6월 18일, 북미대륙에서 형성된 최초의 불어 사용 지역의 스테이크인 캐나다 퀘벡의 몬트리올 스테이크가 토마스 에스 몬슨 사도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6월 18일. 미국의 최초의 지역 대회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렸다.

7월 1일. 킴볼 대관장은 일리노이주 나부에 상호부조회 여성 기념비를 헌납하였다.

8월 11일. 초등학교 조직 100주년 기념 행사가 지켜졌다.

9월 16일. 킴볼 대관장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은 태버네클에 모인 말일성도 여성들과 그 외의 1,400지역에 모인 말일성도 여성들에게 여성을 위한 특별 대회 말씀을 하셨다.

10월 26일. 선교사 훈련 센터는 모든 선교사의 훈련을 맡았다.

10월 30일—11월 2일.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상파울루 신전을 헌납하였다.

12월 15일 헬베시오 마르틴스가 최초의 흑인으로서 브라질 치오 대 자베이로 니테로이 스테이크 부장단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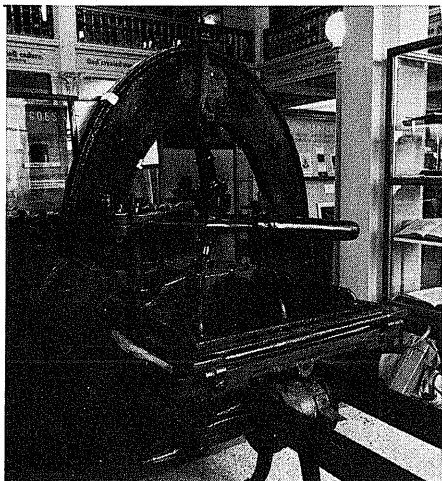
1979

2월 18일. 1000번째 스테이크가 일리노이주 나부에 조직되었다. 원래의 나부 스테이크는 1839년 10월 5일에 조직되었으나 1846년에 해체되었다.

3월 30일. 대관장단은 교회의 중무와 실무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평의회 체제를 도입하였다. 교회 최고 조정 평의회와 지구, 복합 지역, 지역,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는 모든 교회 프로그램을 대표한다.

6월 9일. 조단 리버 신전 기공식을 갖다.

7월 15일. 태버네클 합창단은 1929년 7월 15일에 시작된 방송 15주년을 기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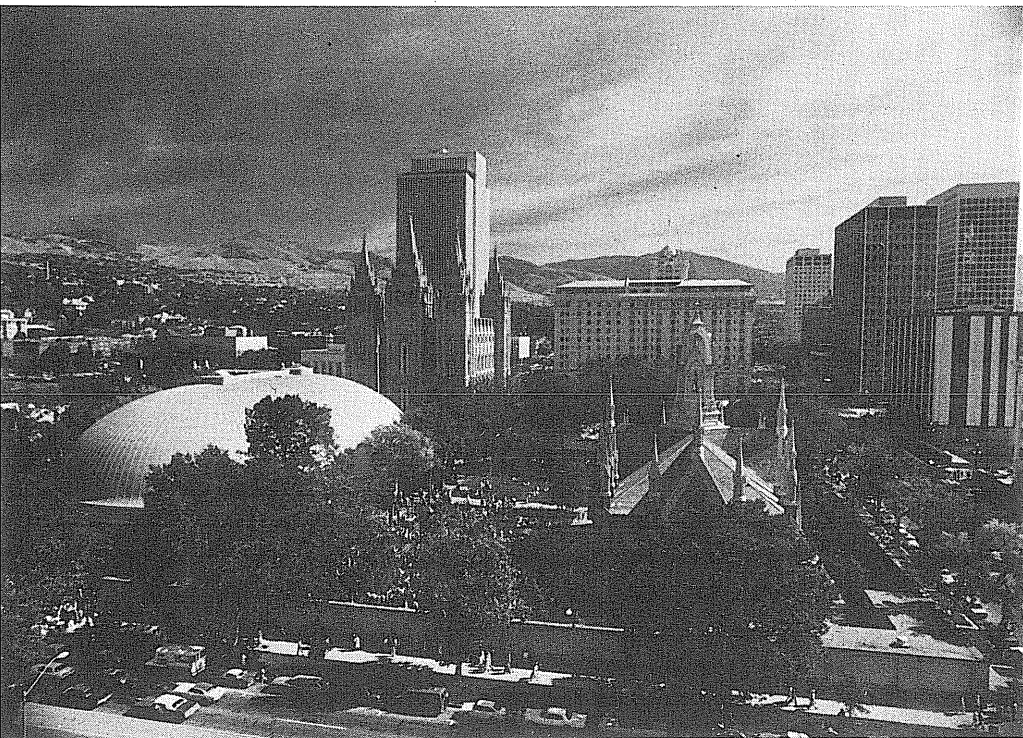


이 비 그랜딘의 인쇄기. 1830년 뉴욕주, 팔마이라에서 최초로 물문경 (5,000부)이 이 인쇄기에 의하여 출판되었다. 이 인쇄소는 1906년에 교회가 인수받아 작업할 수 있도록 재생하였다.

10월 24일. 올슨 하이드 기념 동산이 1841년 10월 24일에 올슨 하이드가 이스라엘 땅을 유다의 흠어진 잔류민들의 집합지로 헌납한 바로 그곳인 감람산 서쪽 기슭에 새로이 단장된 공원에서 헌납되었다. *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행정 청사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신전, 어셈블리홀 그리고 교회 본부 건물.

우리 시대의 영광스러운 복음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지상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 시대에 홀륭하게 번성하고 있음을 알게 합시다.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작은 돌이 굴러가기 시작하였음을 알게 합시다. 이 돌은 곧 인간의 모든 왕국을 부수어 온 지면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 선조가 마지막 때에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린 것”이 지금 성도들에게 퍼부어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숨기우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약속의 때에 들어섰음을 알립시다. (교성 121 : 27-28) 지금 우리의 영혼의 암흑을 꿰뚫는 해의 왕국의 빛은 곧 해의 왕국의 풍만한 영광으로써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초는 놓였읍니다. 지금 주님의 집이 지상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일에 그의 자녀들의 유익과 축복을 위하여 또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

하여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음성과 천사의 성역으로써 요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들에게 지상의 인간이 소유하였던 모든 열쇠와 권세와 신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새로 그들의 지상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읍니다. 그 왕국은 곧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줍니다. 영원하고 충만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계획—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입니다.

영의 자녀를 낳고, 우리가 전세에 존재할 때의 가르침과 시험, 수없는 세상의 창조와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상속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및 영적인 사망이 따르는 아담의 타락이며, 사망을 이기시고 복음



의 율법을 통하여 생명과 불사불멸을 빛 가운데로 가져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모든 율법과 의식과 규례이며 모든 진리, 권세, 성취이며,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열쇠이며 신권이며 특권입니다. (모세서 1:39 참조)

그리스도의 대속, 인간의 구속, 무덤이 열림, 영생의 기이함과 영광입니다.

신앙, 회개, 침례이며, 영의 은사, 하늘의 계시,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위대한 성신의 은사입니다.

영원한 결혼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승영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의 보좌에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현세의 준비 기간의 시험과 지련이며, 슬픔과 고통과 사망입니다. 지옥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 앉는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새로이 밝히셔서 인간이 이전에 하늘로부터 베풀어진 영광이나 기이함에만 의존하지 않게 될 때를 가리켜 복음의 경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신권의 열쇠와 권세의 회복이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경륜을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는 열쇠와 권세의 회복이 수반되었으나 에녹과 노아의 경륜의 시대가 도래할 때에는 수

반되지 않았읍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륜의 시대가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각 경륜의 시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또는 한 경륜의 시대가 다른 경륜의 시대와 어떻게 융화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의 구원의 진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러한 상황하에서 밝혀 주셨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경륜의 시대 중에서도 가장 충만한 때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 사람들이 소유하였던 모든 “열쇠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모두는 저희 경륜의 시대, 저희 권리, 열쇠, 존귀, 위엄, 영광 그리고 신권의 권능을 선언”하는 분명한 열쇠와 권세를 지녔던 성경상의 경륜의 시대로부터 천사의 성역이 왔읍니다. (교성 128:18-21)

바울이 약속한 대로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엡 1:10) 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강은 현재의 태양으로 이미 흘러 들었거나 앞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미 모든 열쇠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결국 모든 교리와 진리는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1842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맞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 경륜의 시대를 맞아 들이는 데 있어서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경륜의

시대와 열쇠와 권능과 영광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통합되어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열쇠와 권세를 소유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모로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그리고 “미가엘 곧 아담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천사”(교성 128 : 18-21). “여러 천사”에는…우리가 모르는 이들도 있겠으나…침례 요한, 모세, 엘리야, 일라이어스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 고대인들이 그들의 권리와 권능을 가져 온 순서를 모르지만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1. 모로나이. 이 고대 니파이인은 1823년 9월 21일밤에 처음으로 와서 밤새도록 요셉 스미스에게 물몬경, 복음의 회복 그리고 말일에 있을 일 등에 대하여 가르치고 권고해 주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기록의 판들을 예언자의 손에 넘겨 주었고 어린 요셉에게 “에브라임의 막대기의 열쇠”를 주었습니다.(교성 27 : 5)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을 입어, 물몬경을 번역하여 세상에 출판했습니다. 이 거룩한 경전은 영원하고 충만한 복음을 담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예언자로서 요셉 스미스의 부름을 증거하며, 성경의 진리를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2. 침례 요한 1829년 5월 15일, 스가라의 아들 요한은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과 그 열쇠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 신권의 열쇠는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복음을 가져

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레위 자손들이 고대에 행하였던 것처럼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권능도 받았습니다.(교성 13편 참조) 이리하여, 요한이 육신의 상태로 있을 때, 회개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켰던 것과 같이, 인자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3.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일이 있는 직후에, 이 세 사람 곧 그들의 시대에 대관장단을 구성하고 있었던 형제들이 거룩한 사도직과 함께 벨기세택 신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왕국의 열쇠를 회복하였고,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부여하였습니다.(교성 27 : 12 81 : 2 ; 128 : 20 참조)

지상의 하나님의 왕국(교회)의 열쇠는 지상에서 주님의 일을 관리하는 권리요 권능입니다. 우리 시대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왕국 곧 교회를 갖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 시대에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할 권능을 주고 명하는 선교 사업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4.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입법자이며, 그의 생애가 메시아의 생애와 비슷하며, 이스라엘의 민족을 애급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모세가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신전에서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1) “세계의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는 열쇠와 (2) “북방 나라에서 열지파를 인도하여 내는 열쇠”(교성 110 : 11)를 주었습니다.

그후로 우리는 점점 커지는 힘을 갖고 위대한 영광 가운데에서 애급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모은 것과

같이, 에브라임 지파와 다른 몇몇 지파의 민족을 미국의 로키 산맥으로 모았으며, 이제는 지상의 여러 나라에 있는 시온의 스테이크로 모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합은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 지파가 돌아올 때, 그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의 지시에 따라서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가 현재 대관장단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이 위대한 사업을 지시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일라이어스. 모세가 온 후에 일라이어스가 왔습니다. 우리는 일라이어스가 인간 상태로 있었을 때 누구였는지는 모릅니다. 일라이어스라는 이름과 칭호를 가진 예언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노아도 그 중의 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일라이어스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으며, 아브라함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맡겼으며”...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지는 않았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받은 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음,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대에 주셨던 위대한 사명을 의미하는 복음을 맡겼읍니다. 그러한 위임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가족과 관계가 있으며, 그 가족이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밖에서도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이 계속되어 가리니 곧 너희가 바닷가에 모래를 헤일 수 있어도 저들을 헤일 수 없으리라”(교성 132 : 30)고 약속된 가족입니다.

요셉 스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일라이어스가 그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실제로 “우리와 우리 자손으로 인하여 우리 후에 올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교성 110 : 12)고 말했읍니다.

살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작은 돌이 굴러가기 시작하였음을 알게 함이다. 이 돌은 곧 인간의 모든 왕국을 부수어 온 지면을 채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아브라함의 결혼 체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족 단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체제이며, 이 체제로부터 영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6. 엘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른 조상들에게 맺어진 이런 약속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되도록(우리가 예언자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와서 그의 동료인 필멸의 중들에게 인봉의 권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인봉의 권능으로 인하여 땅과 하늘에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의식이 매이게 됩니다. (교성 110 : 13-16 참조)

7. 미가엘 또는 아담. ...권능과 영광과 위대함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다음 가는 우리의 최초의 아버지인 미가엘 곧 우리 왕자는 “모든 인간의 최초의 사람”(모세서 1 : 34), 곧 지상의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후손을 감리하는 대제사였으며, 이 땅에 속한 모든 일을 다스리는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열쇠와 권능을 회복했습니까?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지상의 왕국을 다스리는 재판장의 직분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인간은 신권의 권능으로서 “열국의 군대에 반항할 수”(요셉 스미스의 영감역, 창 14 : 31)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복천년을 위하여 새롭게 되고, 다시 에덴 동산의 상태, 곧 사망과 슬픔이 없고 복음의 영광만이 가득 찬 상태가 될 것입니다.

8. 가브리엘 곧 노아. 노아는 악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였고 여덟 명을 홍수의 무덤으로부터 구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 육

체적인 구원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소유하였던 모든 열쇠가 다시 지상에 있는 주님의 예언자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열쇠가 어떠한 것들인지 말할 수는 없으나, 다시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육체적 및 영적인 구원을 가져다 줄 능력을 다시 갖게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악한 자들을 휩쓸어 버린 것처럼 앞으로 오는 불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살후 1 : 8)을 태워 버릴 것입니다.

9. 라파엘. 우리는 누가 라파엘이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경륜의 시대로부터 분명한 열쇠와 권능을 지닌 어떤 사람이 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경륜의 시대로부터 온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분명히 밝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나 그 경륜의 시대로부터 온 자가 라파엘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시대는 시온이 건설되고 시온의 백성들이 변화되어 하늘로 들리워진 시대입니다. 그의 경륜의 시대로부터 온 열쇠가 이 지구를 소생시키는 복천년을 가져다 주는 것일 수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는 에녹의 도시가 복천년에 다시 돌아와서 인간이 지은 지상의 시온과에 결합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10. “여러 천사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열쇠와 권능을 회복시킨 다른 천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의 인간이 소유했던 모든 열쇠, 권능, 신권이 모두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요셉 스

미스와 그의 동료에게 왔으며, 현재의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들은 지상의 하나님의 선임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쇠는 대관장단의 권리이므로 한 시대에 단 한 사람—교회 대관장—만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열쇠와 이러한 형제들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 십이사도회와 너희의 조언자와 인도자로 임명된 대관장단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있어서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이 신권의 권능을 부여받았느니라.

“너희가 지닌 그 권능을 세상의 시작부터 어느 시대에든지 경륜의 시대를 위임받은 모든 자에게 관련이 있나니,

“진실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받은 경륜의 시대의 열쇠는 너희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요, 참으로 하늘에서 너희에게 내려온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보라, 참으로 너희의 부르심이 크지 아니하뇨?”(교리와 성약 112:30-33)

이제 우리는 자신이 받은 것과 이 경륜의 시대에 앞으로 받을 것이 우리 생활과 복음 전파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몇 가지 특징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즐거움과 영원하고 훌륭한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모든 인류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재난에 속한 것이며, 온 지구에 한 없는 황폐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축복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놀라운 일에 대하여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는 고대 성도들에게 계시되었던 것과 똑같은 복음, 똑같은 신권, 똑같은 열쇠, 똑같은 의식 그리고 똑같은 구원의 계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충만한 복음을 가졌으며, 인간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인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불사불멸의 몸으로 일어나서 길을 인도하는 천사들과 여러 신을 지나 가장 높은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능을 인간에게 부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권능을 지닌 합법적인 집행자입니다.

우리는 고대의 사도 베드로가 지녔던 것과 같은 왕국의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땅에서 매거나 풀 수 있으며, 그것은 하늘에서도 영원히 매이거나 풀리지게 됩니다.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받았으며, 모두 어느 정도 영의 은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계시를 받고 시현을 보고 천사를 영접하며 우리의 영혼을 성별시킬 수 있으며, 이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유의 회복을 완성시키고, 이스라엘의 집합과 시온의 건설을 도모하여, 사람들이 인자의 재림에 대비하도록 도우며, 평화와 의의 복천년이 들어오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재림하실 날을 기다려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택함을 받고, 드디어는 하나님의 왕국에

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앉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는 결코 주시지 않았던 약속을 주셨으며 우리는 그 약속을 통해 위안을 얻습니다. 그 약속이란. 복음과 복음에 속한 모든 것을 다시는 이 지상으로부터 취하여 가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왕국이 이길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시는 회복이 필요하게 하는 배도가 없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의 지식이 이 지상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 “주께서 모든 일을 드러내시리”(교성 101:32)라는 약속을 통해서도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밝혀지지 아니하고 현명한 자와 분별이 있는 자에게 숨겨 온 일들이 이 시대 곧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어린 아이와 젖먹이에게 밝히 드러나리라.”(교성 128:18)

우리 시대의 시련

말일의 황폐, 재난, 시련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상 유례없이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지면에는 지진, 홍수, 전염병,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 사이에 전쟁, 파괴, 멸망, 사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개다이엔톤 결사대는 그들의 동료들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범죄와 타락과 악행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육욕과 부도덕 등 소돔과 고모라의 온갖 악이 홍수처럼 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

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주님께서 불태우실 포도원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때 모든 썩어질 것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 때는 악인의 원한과 멸망의 시기로 운명지어졌습니다. 인자가 오시는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 중에서도 주님의 성도는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오는 시험은 과거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 시험과 시련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며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을 당하며 죽고, 어떤 이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이러한 일들이 아담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모두 영원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주는 자들은 예비된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륜의 시대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이신 이의 성도인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륜의 시대는 모든 경륜의 시대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악이 파멸하고 진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주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성도들이 소유하였던 왕국의 신비와 구원의 교리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이해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에녹과 그의 백성이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벳인과 니파이인이 했던 것처럼 물몬경의 인봉한 부분을 갖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과 요셉 스미스가 영감을 받아 성경에서 변경한 것을 통하여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믿지 않는 한 어떻게 이러한 진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화론을 믿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고대 성도들과 같은 신앙을 갖게해줄 순종과 의를 얻어야 합니다. 곧 더 많은 기적을 행하고 산을 움직이며, 열국의 군대를 무시할 만한 신앙, 강렬한 불빛을 꺼 버리고, 바다를 가르며, 사자의 입을 닫게 할 수 있는 신앙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단계적으로 옵니다.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신앙을 얻지 못할 때 하물며 어찌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가를 수 있는 신앙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애에 주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매사에 동의할 수 있고,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되며,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십일조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찌 천남의 법을 지키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간결하고 쉬운 구원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경륜의 시대는 모든 경륜의 시대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악이 파멸하고 진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기초가 놓여졌읍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주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복잡하고 무한한 진리에 일치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완전케 하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에서 생활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변화하는 때가 이를 때, 하늘의 영역에서 에녹과 그의 성과 함께 융합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천사를 영접할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서 그들과 같이 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의 침례를 받을 때 모든 회원은 죽을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로 성약을 맺습니다. 이 때까지 이 막중한 사명에 관하여 우리는 조금 밖에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수십 억의 인구가 암흑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합당한 자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소망조차 별로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며, 모든 나라의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시간과 재산을 바칠 용감한 사람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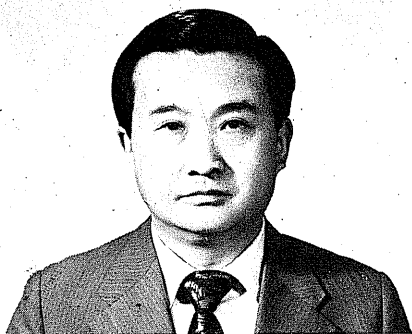
우리는 조상을 탐구하여 주님의 신전에서 그들을 위한 구원과 승영의 의식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륜의 시대는 대리 의식을 수행하는 경륜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영의 세계에서 믿고 순종하는 모든 합당한 자들이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며 모든 자녀가 그의 영원한 왕국에서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기쁨으로 받게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신전과 죽은 자의 성명 초출 프로그램의 확대 및 죽은 형제들을 위하여 더 많은 대리 의식의 집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지 않아 미주우리주 객슨군에 신전을 짓게 될 것이고, 옛

예루살렘에도 또 하나의 신전을 짓게 될 것이며 그 밖의 여러 나라에 그와 같은 거룩한 신전을 많이 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 세워질 시온의 스테이크로 집합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피난처로서 스테이크를 조직하고 시온을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복음만이 구원과 승영의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며, 그의 복음을 받아 그의 심부름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재산은 그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생명까지도—을 희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매사에 있어서 진실하고 충실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부에 비하면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구세주가 시온 산으로 오고 왕국이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은 지금도 번성하고 있고 영원히 번성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로서, 민족으로서, 말일성도로서, 과거의 기초 위에 집을 짓고, 복음의 영광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사업이 이루어졌느니라. 너희는 와서 너희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라.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자. 너희는 이제 나와 나의 아버지와 함께 있으리라.” (교성 51:19:132:49 참조) *



“하나가 되자”

서울 서스테이크 부장

김 창 선

교리와 성약 38장 27절에는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골로새서 1장 24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4~27절, 로마서 12장 4~13절 등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으나 몸은 하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몸이 없이 지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지체들이 그 몸을 중심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0~11절에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 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기록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단합이야말로 완전케 하는 데 필수 조건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은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누구를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십이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완전케 될 수 없을 뿐더러 성도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개개인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악마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교회 어느 그룹과 각 개인 사이에 불화, 의심, 적의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교회가 조직된 본래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이 의롭게 생활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해롤드 비 리 대판장님은 “만일 우리가 와드나 지부에서 단합을 이루지 못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파벌이 생긴다면 이것은 무엇인지 잘못되었다는 증거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시온을 한국 땅에 건설하는 기초가 되는 역군이 되어야겠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어느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다.” 고집만 부리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협력이나 조화나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각 개인이 서로 자기의 고집만을 관철하려고 싸우는 사회는 일그러진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일그러진 인상을 주어 그 사회는 기형이 될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구성원이 훌륭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구성원 전부가 능력이 많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가 알맞은 위치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하나가 되는 데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이란 손해를 봄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너그러운 사람일 것이며, 이런 사람은 능력이 어떠한 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망의 80년대에 다시 하나가 되어 보다 차원높은 성숙한 자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